



# 고전운문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정경\* 일자를 어찌하여 그릇 알고  
 인간에 적강하여 평생에 병이 많아  
 북창하에 누웠으니 뜻대로 하기 어렵도다

[A] 북희씨\*를 꿈꾸던가 아침에 까치 소리 과연히도 새롭도  
 다  
 임금님 명령 전하는 소리 늘어지게 나는구나  
 갑인년 방소린 듯 을묘년 감시런 듯  
 홍문관 직중 아이 편지를 올리거늘  
 전하는 것 얼핏 들어 봉함을 떼어 보니  
 충청도 부여 현감 임금이 결정하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감축하다  
 작년에 안악 영감 가문에 단비더니  
 ㉠오늘날 이 희보는 그 더욱 망외로다  
 비록 소읍이나 내게는 고향이라  
 착할사 우리 아들 일마다 기특하다  
 정공등\* 얻어 내서 병든 부모 쾌차하니  
 화풍은 만실하고 시절은 삼월이라  
 친척은 만당하며 시우는 축축하여  
 이화도 향기롭다 풍백을 의논하며  
 성은이 거듭되니 이 역을 피할쏘냐  
 청하 초길일에 영양으로 발행하니  
 친척이 기뻐하고 벗들이 축하하니  
 범 같은 많은 하줄 조수같이 밀려들어  
 보운층 좋은 말에 쌍가마를 높이 실어  
 청풍은 선배 되고 명월을 후배 삼아 추종이 십 리로다  
 좌우에 권마성\*은 위풍이 불만하다  
 당시에 듣던 소리 반갑기 그지없다  
 독교를 후거하니\* 별수는 전혀 없네  
 예천 땅 오천내를 밭 아래 굽어보니  
 용궁읍을 얼른 지나 우두원 숙소하고  
 삼산을 잠깐 들러 옛 벗님 찾아보고  
 수향에서 배를 탈 때 어옹을 즐기는 듯

(중략)

옥천을 다시 보니 반석이 더욱 좋도다  
 삼십 년 떠난 동생 옥성 와 만나 보니  
 힘든 일에 고생 많아 청수한 그 얼굴이 반백이 다 되었네  
 손잡고 눈물 흘리니 회포도 엄억하다\*  
 앞길이 탄탄하니 옛 말씀 다할쏜가 창연지심 그지없다  
 꽤거리 큰 숙소에 북풍이 마주 부니  
 십오야 밝은 달에 성신을 거느리고  
 백련화 한 가지가 가냘프게 날아들어  
 못사람 우러르는 중 지재현 하울 적에\*  
 이 좋은 이 세계를 남에게 보이코자  
 행인이 피곤해하니 주막을 들러 가며  
 가마 떼어 끄는 말이 편토록 하령하니  
 앞뒤에 다리 떨기 백 배나 더하구나  
 연산에서 말을 갈아 채찍질 다시 하니

채석강 뱃머리가 여울을 만나는 듯  
 먼지에 모인 때를 백마강에서 없애니  
 금회가 탁락하야\* 선분\*이 적을쏘냐  
 고란사 청풍전은 본 듯이 알거니와  
 조령재 청풍경을 앉아서 보겠노라  
 노성현 은진미륵 이제야 친히 보고  
 선경을 얼핏 보며 부여로 돌아드니  
 향기에 생명거동 호수입식 책전립이\*  
 하룻날에도 기묘한데 ㉡ 세 번을 알현하네

[B] 오리정 넓은 뜰에 꿀벌이 모이는 듯  
 전후 사령 걸친 옷과 급창의 청천익\*은  
 개암이 잣는 곳에\* 오색이 어리었네  
 삼현 육각은 천지가 진동하니  
 백제 적 도읍이라 오히려 기풍 있도다  
 수문을 크게 열고 내아로 모실 적에  
 염정성 수양버들 그늘도 한가롭다

- 연안 이씨, 「부여노정기」

\*황정경: 도가의 경전. 신선이 이 경전의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귀양 온다고 함.

\*북희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여기서는 태평성대를 의미함.

\*정공등: 껌질과 열매를 약으로 사용하는 식물.

\*권마성: 말이나 가마가 지나갈 때 그 앞에서 하줄들이 목청을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

\*독교를 후거하니: 말 한 마리가 끄는 가마를 뒤에 세우니.

\*엄억하다: 가슴을 덮는구나.

\*지재현 하울 적에: 고갯마루에 나타날 때에.

\*금회가 탁락하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이 뛰어나니.

\*선분: 신선의 연분.

\*향기에 생명거동 호수입식 책전립이: 기생들의 생글거리는 모습과 범의 수염을 하고 선 무관들이.

\*청천익: 푸른 옷소매.

\*개암이 잣는 곳에: 해져서 형질 대어 기운 곳에.

1.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소 배를 타는 것을 싫어하여 강을 건널 때 긴장하고 있다.
- ② 아들이 아랫사람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 ③ 이동하다가 미륵불을 찾아가서 가문의 번영을 위해 불공을 드리고 있다.
- ④ 아름다운 경치를 다른 사람들도 즐기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아들에게 고향 사람들의 배려와 친척들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화자가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아들과 동행하며 하회에서 부여까지 여행한 체험을 기록한 여성 기행 가사이다. 공적인 사명감이나 관념적 이상향 등을 부각하는 이전의 사대부 기행 가사와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사회적 제약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뇌하는 공간인 규방을 벗어난 여성이 아들의 공적 부임 행차를 따라가면서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장소들은 화자의 생활 공간이거나 여행 도중 방문한 곳으로, 화자는 여정을 제시할 때 많은 사람의 배움을 받으며 출발하는 입신양명한 아들을 둔 성공한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결혼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개인적 인연의 대상을 찾아가는 상황을 언급하는 등 개성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인간에 적강하여 평생에 병이 많아 / 복창하에 누웠으니 뜻대로 하기 어렵도다'는 화자가 자신의 전생과 규방에서의 병약한 처지를 연결하며 고뇌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성은이 거듭되니 이 역을 피할쏘냐'는 아들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입신양명의 상황을 화자가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성공한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청풍은 선배 되고 명월을 후배 삼아 추종이 십 리로다'는 화자가 부여로 향하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을 보며 감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삼산을 잠깐 들러 옛 벗님 찾아보고'와 '삼십 년 떠난 동생 옥성 와 만나 보니'는 화자가 아들의 부임에 동행하다가, 사회적 제약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개인적 인연의 대상을 방문해 회포를 푸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고란사 청풍전은 본 듯이 알거니와'는 화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장소를 여행 도중에 실제로 방문한 상황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감탄사를 활용해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아들의 입명 사실을 듣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아들이 부임지에서 환영받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B]에서 [A]와 달리 화자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모두 화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신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4.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문 차원의 경사를, ㉡는 국가 차원의 경사를 의미하는 상황이다.
- ② ㉠은 화자의 아들이 임금의 신뢰를 얻은, ㉡는 화자가 임금의 신뢰를 얻은 결과이다.
- ③ ㉠은 ㉡와 같은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다.
- ④ ㉠와 ㉡는 모두 화자가 힘겨운 여정을 수용하게 된 계기이다.
- ⑤ ㉠와 ㉡는 모두 화자가 기대하지 않은 행운이 발생한 데 대한 반응이다.

[0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르는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①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

(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야 다들쏘나  
 시비(柴扉)에 걸어 보고 정자(亭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한데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은 오늘 하고 욱기(浴沂)는 내일(來日) 하세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갖 피어 익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數) 놓고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준중(樽中)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뢰어라  
 소동(小童) 아해더러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明沙)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산이 거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벌려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꿨는 듯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샤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 정극인, 「상춘곡」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령스러운 공력.

\*현사롭다: 야단스럽다.

\*두견화: 진달래.

(나)

정업원동은 창덕궁의 서쪽에 있는데, 숲과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가 그 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흘러 내려와서 서늘하고 아름다운 운치를 갖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실록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늘 직책에 얽매이다 보니 한 번도 조용히 찾아볼 수 없어서 한탄만 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유희경(劉希慶)을 따라 금천교 위에 올라갔다가 그 다리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 위로 무수히 떨어진 꽃잎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마 무릉도원이 여기서 멀지 않나 보군. 이 물을 따라 올라가면 만리장성의 노역을 면하기 위해 피난 왔다가 수백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 있다는 그 진나라 사람도 만나 보겠군.”

그러자 유희경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 물의 상류에 내가 살고 있네. 나는 그곳에 **누대**를 지어 놓았는데 마침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네. 어젯밤에 비바람이 몹시 불더니 아마 오늘 그 꽃잎들이 많이 떨어졌나 보군. 공이 만일 가 보겠다면 내 마땅히 이곳의 주인으로서 기쁘게 맞이하겠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한 백 발자국 남짓 올라가자 오른쪽에 경치 좋은 곳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그가 사는 곳이었다. 흐르는 물이 맑고 찬데, 그 물가에 돌을 쌓아 누대를 지었다. 그 누대의 섬돌은 흐르는 물 위로 한 자 남짓 높게 쌓여 있었다. 그래서 물을 베고 있다는 뜻으로 ‘침류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이 누대의 아래위에는 다른 꽃이라고는 없고 오직 복숭아나무 수십 그루가 개울물의 좌우에 늘어서 있어서, 그 나무의 떨어지는 꽃들이 붉은 비가 되어 물 위로 떠내려갔다. 그리고 이 개울은 한 폭의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출렁출렁 춤을 추었다. 옛날 사람이 일컫는 **무릉도원이라는 곳도 여기보다 낫지는 않을 듯하다.** 당나라 사람 조영(祖詠)이 그의 시에서 “무릉도원의 멋을 저잣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한 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옛날 유신(劉晨)이라는 자는 천태산(天台山)의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대가 바로 유신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신비스러운 경치를 보았으니** 무릉도원을 찾아갔던 어부의 느낌이 나와 같았겠지. 내 이 물에 들어가서 이 물로 입을 가신다고 하여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 마주 보며 한바탕 웃은 뒤에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굳이 씻지 않아도 깨끗해졌다. 속세의 티끌 하나 묻어 있지 않은 곳이라서 온갖 잡념이 가시니, 정신과 기운이 저절로 맑아져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였다.** 속세를 벗어난 경지가 참으로 이런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곳의 경치를 보고 유희경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이 물이 복잡한 도시에 가까이 있는데도 숲속에 깊숙이 숨어 있으니, 마치 옛날 은사(隱士)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맑고 좁은데도

물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기만 하니, 이는 마치 훌륭한 은사와 비교하면서 이 누대를 '침류'라고 이름 지은 것임을 알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A] “깊숙이 근원을 쫓고 깨끗이 성품을 닦은 뒤에 오로지 숨기는 것만을 최선으로 삼지 말고, 덕을 성취시키는 데 힘쓰기 바라겠네. 다시 말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자꾸 막아서 그것을 혼자만 즐기려고 한다면 이 역시 애석한 일일세. 공자가 말하기를 ‘팔베개를 하고 모로 누워 있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 즐거움을 버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본다면 아마 올바른 도리에 거의 가까울 것 같네.”

그제야 그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르기를, “내 오늘에야 즐거워할 바를 깨달았네.” 하였다.

- 이수광, 「침류대기」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 이미지를 대조하며 계절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직접적으로 관찰한 자연물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며 현실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청자의 물음에 답변하는 방식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⑤ 속세의 덧없음을 비판하며 그와 대비되는 자연의 영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는 화자가 자신의 거주지나 그 주변의 공간에서 체험한, (나)는 글쓴이가 타인의 거주지나 그 주변의 공간에서 체험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의 체험은 거주지의 제시와 거주지 주변의 길이나 시냇가, 산 등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간 여러 명승지를 기행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한가롭게 걸어 다니면서 일상적인 생활 공간의 경치를 감상하는 일종의 생활 체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험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이 감상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양적 이상향의 이미지와 연결하고 있는데, 이는 상상의 관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생활 공간에서 접하는 자연에 대한 예찬과 자신의 체험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① (가)의 '소요음영하야'와 '미음완보하야'는 화자가 일상적인 생활 공간을 한가롭게 걸으며 즐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누대'는 글쓴이가 방문한 유희경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글쓴이는 그 주변 공간에서 유희경과 함께 유유자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무릉도원이라는 곳도 여기보다 낫지는 않을 듯하다'는 글쓴이가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는 체험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두견화를 부치 들고'와 (나)의 '이 신비스러운 경치를 보았으니'는 이상향의 이미지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행위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무릉이 가깝도다'와 (나)의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였다'는 생활 체험에서 접하는 자연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자신의 흥취를 새에 이입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봄날을 즐기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화자가 시냇가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글쓴이가 평소 골짜기 안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⑤ ㉣: 글쓴이가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살아가는 유희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8.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봄을 맞이한 들판을 바라보며 겨울의 자취를 그리워하고 있다.
- ② 온갖 자연물을 만들어 봄의 자연을 즐기는 초월적 존재를 부러워하고 있다.
- ③ 유한한 인생에 대해 한탄하며 남은 인생을 더욱 즐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④ 세속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산의 정상에 천천히 오르며 주변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고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9. <보기>의 ㉠, ㉡에 들어갈 학생의 답변 내용을 추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만약 작가가 「상춘곡」의 마지막 행을 ‘아모타, 호의호식(好衣好食)과 멀어진들 어떠하리’로 표현했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학생:** 현재 (가)의 마지막 행은 화자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아모타, 호의호식(好衣好食)과 멀어진들 어떠하리’로 표현한다면 글의 맥락상 화자가 ㉡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①	만족감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조화를 바라는 소망
②	만족감	부귀영화보다는 청빈한 삶이 좋다는 인식
③	기대감	가난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겠다는 포부
④	기대감	속세에 대한 강한 미련과 출세에 대한 각오
⑤	겸손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본받게 만들려는 의도

10.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유희경이 훌륭한 은사의 품격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유희경은 글쓴이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유희경이 자연에서 얻은 정신적 가치를 타인과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성현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을 유희경에게 권하고 있다.
- ⑤ 유희경은 도시와 가까운 누대의 지리적 장점과 정결한 시냇물의 속성을 고려하여 누대의 이름을 지었다.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여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여 삶의 고통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화자의 움직임의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독백체의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노동요는 일을 즐겁게 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과거에 방아를 찧거나 길쌈을 하는 일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노동 행위로, 단조로운 행위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요를 부르며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요의 길이는 작업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노동의 과정을 장황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압축하여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와 (나)에서는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 내기 위해 노동을 통해 얻게 될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거나 윗사람을 받드는 도덕적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을 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가)의 '거친 밥'이나 (나)의 '버선'은 노동을 통해 얻게 될 결과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찧어'와 (나)의 '짜아 내어'는 힘겨운 노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받잡고'와 (나)의 '드리겠네'는 윗사람을 받드는 도덕적 실천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남거시든 내 먹으리'는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 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유 있는 삶의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삼간방에 누에 놓고 청실홍실 뽑아내서'는 길쌈에서 실을 만드는 과정을 압축하여 보여 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지상에서 초월적 세계로 옮겨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힘겨운 삶을 살게 만든 원인을 제시해 연민을 자아내고 있다.
- ③ ㉡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옷을 짓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공간적 배경을, ㉡은 시간적 배경을 제시해 화자의 소망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은 기쁨을 유발하는 행위를 통해, ㉡은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통해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늘이 이 산을 열어 지계(地界)도 밝으시고  
 ㉠천추(千秋) 수월(水月)이 분(分) 밖에 맑았어라  
 아마도 석담 파곡을 다시 볼 듯하여라  
 <제1수>

㉡일곡(一曲)은 어디매오 화암(花岩)이 기이하네  
 선원(仙源)의 깊은 물이 십 리의 호수로다  
 엇더타 일진(一陣) 범풍(帆風)\*이 갈 데 알아 가나니  
 <제2수>

이곡(二曲)은 어디매오 화암도 좋을시고  
 ㉢천봉(千峯)이 합쳐진 데 한없는 연화로다\*  
 어디서 견괘(犬吠) 계명(鷄鳴)\*이 골골이 들리나니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디매오 황강(黃江)이 여기로다  
 양양(洋洋) 현송(絃誦)\*이 구재(舊齋)를 이었으니  
 ㉣지금의 추월(秋月) 정강(亭江)이 어제론 듯하여라  
 <제4수>

사곡(四曲)은 어디매오 이름도 혼란하네  
 ㉤탄성(灘聲)과 악위(岳危)\*가 계곡을 흔드는데  
 그 아래 깊이 자는 용이 도가성(櫂歌聲)\*에 깨도다  
 <제5수>

육곡(六曲)은 어디매오 병산(屏山)이 금수(錦繡)로다  
 ㉥백운 명월이 옥경(玉京)\*이 여기로다  
 ㉦저 위에 태수(太守) 신선(神仙)이 네 뉘신 줄 몰라라  
 <제7수>

칠곡(七曲)은 어디매오 부용벽(芙蓉壁)이 기절(奇絶)하네  
 백 척 천제(天梯)에 학려(鶴唳)\*를 듣자올 듯  
 ㉧석양의 범범고주(泛泛孤舟)\*로 오락가락하는구나  
 <제8수>

팔곡(八曲)은 어디매오 능강동(陵江洞)이 맑고 깊어  
 ㉨금서(琴書) 사십 년에 네 어인 손이러니  
 아마도 일실 쌍정\*의 못내 즐겨 하노라  
 <제9수>

- 권섭, 「황강구곡가」

- \*석담 파곡: '석담'은 이이가 강학하던, '파곡'은 송시열이 강학하던 곳.
- \*일진 범풍: 돛을 달고 배를 움직일 정도로 부는 바람.
- \*한없는 연화로다: 끝이 없는 안개로구나.
- \*견괘 계명: 개 짖는 소리와 닭의 울음소리.
- \*양양 현송: 울려 퍼지는 거문고 소리.
- \*탄성과 악위: 여울 소리와 높게 솟은 산.
- \*도가성: 노 젓는 소리.
- \*옥경: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장소.
- \*학려: 학의 울음소리.
- \*범범고주: 띄워 놓은 배.
- \*일실 쌍정: 작가가 직접 조성한 거연재와 만풍각을 가리킴.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중첩된 산세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여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형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자연 속에서 노니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권섭은 자신이 존경하는 큰아버지 권상하가 강학하던 황강에 정착하여 수십 년간 살았다. 「황강구곡가」는 권섭이 82세 때 창작한 작품으로, 권상하를 회고하며 황강 일대의 풍경을 배를 타고 둘러보는 상황을 제시한 연시조이다. 이 작품은 서사인 <제1수>를 빼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2수>에서 <제4수>까지는 권상하의 자취가 남아 있는 장소를 형상화하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진 도학의 계통을 계승하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제5수>에서 <제7수>까지는 아래에서 위까지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황강의 비경을 발견해 나가는 모습과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며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제8수>에서 <제10수>까지는 황강 일대에서 은거하며 유유자적하는 만족감과 공간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① <제1수>의 '다시 불 듯하여라'는 화자가 권상하가 강학하던 장소를 둘러보며 유명한 도학자의 강학 장소와 관련지어 공간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4수>의 '황강이 여기로다'는 작품의 중심 공간을 부각하는 것으로, '어제론 듯하여라'는 권상하의 자취를 떠올리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5수>의 '그 아래 깊이 자는 용'은 화자가 황강의 비경을 둘러보기 위해 타고 이동하는 배의 모양을 인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7수>의 '병산이 금수로다', '옥경이 여기로다'는 황강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제9수>의 '맑고 깊어'는 은거하며 유유자적하는 공간의 특성을, '못내 즐겨 하노라'는 화자가 자신이 만든 장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둘 다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가 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 화자가 수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가 황강 일대 자연의 유구함을 나타낸 것이고, ㉣은 화자가 황강의 자연 속에서 지낸 기간을 구체화한 것이다.
- ④ ㉡는 화자가 현재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을 제시한 것이고, ㉢은 화자가 과거에 친밀감을 느꼈던 대상을 회상한 것이다.
- ⑤ ㉢은 화자가 상상 속에서 떠올린 자연물이고, ㉣은 화자가 현실 속에서 사물을 접한 했수이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관직을 얻어 조정에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일생의 보람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관직에 임용되어 고위직 관료가 되어도 순탄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불안정한 조정의 혼란 속에서 고뇌하거나 임금과의 의견 대립, 당쟁으로 인한 갈등이나 간신들의 모함, 자신의 과오 등으로 파직되거나 유배에 처해지는 등 시련을 겪는 일이 많았다. 조선 중기 이후, 이런 상황과 관련해 고위직 관료들의 진솔한 심정을 다룬 시조들이 창작되었다.

다음은 선조 때 이양원이 지은 시조이다.

〔 높으나 높은 나무에 날 권(勸)하여 올려 두고  
 [A] 이보오 벗님네야 흔들지나 마십시오  
 〕 떨어져 죽기는 서럽지 않아 ㉠일 못 볼까 하노라  
 성품이 충성스럽고 박학하며 흑백의 논쟁에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양원은 임진왜란 발생 후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그 과정에서 모함을 당하는 자신의 위태로운 처지에 대한 고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우국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선조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 때 대북파가 당파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인목 대비 폐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다가 유배형에 처해진 이항복은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시조를 지었다.

〔 철령(鐵嶺) 높은 고개 쉬어 넘는 저 구름아  
 [B] 고신(孤臣) 원루(冤淚)를 비 삼아 띄워다가  
 〕 임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볼까 하노라  
 유배형을 받은 후 이동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곳이 없었던 작가가 험준한 고개를 넘으며 자신의 비통함과 임금에 대한 원망을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토로하는 것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항복은 유배지인 북청에서 인목 대비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며 또 다른 시조를 지었다.

〔 시절(時節)도 저러하니 인사(人事)도 이러하다  
 [C] 이러하거니 어이 저러 아닐쏘냐  
 〕 이렇군 저렇군 하니 한숨 겨워 하노라  
 무과에 급제한 후 어영 대장, 병조 판서 등을 지낸 구인후는 시아버지인 인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소현 세자빈(世子嬪) 강씨의 신원(伸冤)을 상소한 김홍욱을 도우려다가 효종의 분노를 유발해 파직당했다. 인조의 둘째 아들로 형인 소현 세자가 죽어 왕위를 계승한 효종의 입장에서는 인조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상소는 자신의 왕위 계승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 효종의 신임을 얻었던 구인후도 벌을 받게 된 것이었다. 다음 시조는 그가 조정을 떠나게 된 상황과 그 이후의 처신을 나타내고 있다.

〔 어전(御前)에 실언하고 특명(特命)으로 내치시니  
 [D] 이 몸 갈 데 없어 서호(西湖)를 찾아가니  
 〕 밤중만 달 드는 소리에 연군성(戀君誠)이 새로워라  
 구인후는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임금을 향한 정성을 새롭게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이는 임금에 대한 이항복의 태도와는 대비되는 면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7.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이양원이 영의정이 된 후에 시조를 창작한 이유는?
- ② 구인후가 임금의 분노를 유발하여 조정에서 쫓겨난 이유는?
- ③ 유배와 관련한 시조 중 문신들의 작품이 더 많이 전해지는 이유는?
- ④ 이항복을 포함하여 유배를 당하게 만든 정파가 이익을 위해 추구한 일은?
- ⑤ 조선의 사대부들이 조정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한 목표는?

18. [A]~[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을 포함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부탁하고 있군.
- ② [B]에서 화자는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군.
- ③ [C]에서 화자는 인목 대비의 폐위를 주도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의 행동을 한탄하는 방식으로 세태를 비판하고 있군.
- ④ [B]와 [D]에는 모두 조정을 떠난 화자가 현재 지나거나 머무르는 장소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군.
- ⑤ [A]에서는 염려하는 태도를 통해, [D]에서는 정성을 다짐하는 태도를 통해 임금에 대한 화자의 충성을 나타내고 있군.

19. 윗글의 시어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벗님네'와 [B]의 '고신'은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 ② [A]의 '높으나 높은 나무'와 [D]의 '달 드는 소리'는 화자의 그리움을 자극하는 매개체로 설정한 것이다.
- ③ [B]의 '뿌러 볼까 하노라'와 [C]의 '한숨 겨워 하노라'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토로한 것이다.
- ④ [B]의 '떠위다가'와 [D]의 '찾아가니'는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 ⑤ [C]의 '이러하다'와 [D]의 '새로워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 고뇌를 독백의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20. 윗글의 ㉠와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부러진 불개야미  
 앞발에 정종(疔腫)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야미 광릉(廣陵) 샘재 넘어 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물어 추켜들고 북해(北海)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인아 임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

- ① ㉠는 ㉡와 달리, 잘못된 정치 현실에 지쳐 정계를 떠나려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는 ㉠와 달리, 화자의 결백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③ ㉡는 ㉠와 달리, 인격을 부여하여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④ ㉠와 ㉡는 모두 화자가 곤경에 처하도록 배후에서 괴롭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와 ㉡는 모두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고전산문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풍운은 이운경에게 구조되어 성장하고, 이운경의 전처 최 씨의 소생인 경 패와 혼인한다. 이운경이 세상을 떠난 뒤 후처 호 씨의 박대가 심해지자, 풍운은 운경이 남긴 유서에 따라 경패의 동생 경운과 함께 집을 떠나고, 풍운과 헤어져 떠돌던 경패는 몸을 의탁한 단원사에서 시어머니 양 씨를 만난다. 한편 풍운은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서번과 서달이 합세하여 서천 삼십육도(三十六都) 군장(君長)을 쳐서 항복받아 적세(賊勢)가 견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천자가 크게 놀라시어 문무백관과 의논하니, 승상 이진이 아뢰었다.

한림 장풍운은 천하 영웅이오니, 대원수를 삼아 도적을 방비 하소서.”

천자가 즉시 풍운을 불러 말했다.

“지금 역도(逆徒)의 세력이 여차하니 경의 지략을 아는 고로 한 번 수고를 시키고자 하노라. 경은 충의를 다하라.”

풍운이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하가 되어 이런 때를 만나서 어찌 자신의 몸을 먼저 돌보겠나이까?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한 번 복을 쳐서 **오랑캐를 짝 쓸어 없애**리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천자가 크게 기뻐하여 상장군 절월(節鉞)과 대원수 인수(印綬)를 주시고, 정예병 백만과 장수 천여 명을 주셨다. 이에 한림이 사은(謝恩)하고 그날로 훈련 장소에 나아가 군사를 훈련시킨 후, 다음 날에 하직하고 행군했다.

대원수 장풍운이 행군한 지 여러 날 만에 적병을 만나진(陣)을 치게 되었다. 적진의 문이 열리는 곳에 한 대장이 앞서서 나와 싸움을 돋우거늘, 원수가 선봉장 양의에게 명하되, 계교를 가르쳐 내어보냈다. 양의가 말을 타고 창을 빼어 들어 나가 서로 겨루기를 20여 합을 하고 거짓으로 패한 듯 달아났다. 그러자 번달이 기회다 싶어 급히 뒤쫓아 오니, 대원수가 지휘대에 올라 오방 기치를 휘두르며 지휘했다. 지휘에 맞춰 전후좌우의 대진이 일시에 대포를

[A] 쏘고 갑자기 습격하여 죽이자, 번달이 대원수의 계교에 빠진 줄 알고 급히 군사를 물렸다. 대원수가 또 복을 올리고 기를 휘둘러 적병을 마음대로 마구 짓이겼다. 번달이 대패하여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니, 양의의 칼이 번뜻거리자 번달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번왕이 번달의 죽음을 보고 감히 싸울 마음이 없어 손을 묶고 항복했다. 대원수가 번국에 들어가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어루만져 위로하고, 삼십육도 군장들을 계하(階下)에 무릎 꿇리고 죄상을 낱알이 들추어 밝히니, 위엄이 삼국에 진동했다.

이때 천자가 대원수를 보내시고 전황(戰況)을 몰라 밤낮으로 근심하시었다. 때마침 추밀사가 싸움에 이겼다는 장계(狀啓)를 올리니, 천자가 보시고 크게 기뻐하며 대원수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더라.

차설. 대원수 장풍운이 회군하다가 서평관에 이르러 군사를

쉬게 했다. 이날 밤, 한 ㉠노승이 육환장을 짊고 임시 장막 앞에 이르러 대원수에게 말했다.

“대원수가 **크나큰 공을 이루고** 돌아오시니 기쁘지만, 알지 못하겠소이다! **부모와 남자를 찾지** 아니함은 어찌 된 일이오 이까? 만일 찾고자 하거든 대로(大路)로 가지 말고 여남(汝南) 소로(小路)로 가면, 응당 모친과 남자를 보게 될 것이옵니다.”

노승이 이렇게 말하고는 간데없거늘, 놀라 깨니 허무한 꿈일러라. 마음이 황홀하고 의심스러웠으나 즉시 **중군에 명령하여 여남으로 행군**하니, 여남 소속 각 읍이 소란스러웠다. 여남에 이르러 한동안 머물기로 하고 진을 치는데, 대원수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밤이 깊도록 달빛을 의지하다가 잠깐 졸았다. 꿈에 문득 노승이 나타나 일러 주었다.

“대원수가 **모친과 경패 남자**를 보려 하거든 이 땅에서 찾으소서!”

대원수 장풍운이 노승의 소매를 잡으며 물었다.

“노사(老師)는 뉘시온대, 나의 부모와 남자가 있는 곳을 일러 주시나이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빈승(貧僧)은 금산사 화주이나다. 그대가 정성이 지극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외다.”

이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없었다. 잠에서 깨어난 대원수는 의아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래도 공중을 향해 감사히 절하고 또 절했다.

날이 밝자, 고을의 수령을 청해 여남 경치에 대해 물으니, 태수가 대답했다.

“풍경을 보려 하시면 단원사 승방이 가장 빼어나게 좋나이다.”

대원수 장풍운이 듣고는 죽장망혜의 아주 간편한 차림으로 시종들 아이만을 데리고 단원을 찾아 올라갔다.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시내를 두른 곳에 누각이 하늘로 치솟아 있고 상서로운 구름이 어리었으니, 진실로 이 세상 밖의 다른 세상이었다. 대원수 장풍운이 절의 입구에 다다르니, 한 ㉡노승이 맞이했다. 노승이 이들을 본당에 좌정케 하고 온 연고를 묻자 대원수가 대답했다.

“나는 정처 없이 다니며 뛰어난 경치를 구경하는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쉬어 가기를 바라나이다.”

“이곳은 승방이라 속세의 사람이 머물지 못하나니, 객실에서 묵으시옵소서.”

대원수 장풍운 일행에게 차를 대접한 후에 노승이 또 물었다.

“길에서 대원수의 행차를 보셨나이까?”

“보지 못했나이다.”

그때 문득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니, 대원수가 그 연고를 묻자 노승이 대답했다.

“청승맞은 승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나이다.”

대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저절로 마음이 몹시 슬퍼져 눈물이 흐름을 주체하지 못하니, 노승이 물었다.

“젊은이가 무슨 근심거리가 있어서 슬퍼하시나이까?”

“나도 난중(亂中)에 부모를 잃고 그분들의 생사준망을 알지

못하니, 절로 슬퍼지나이다.”

“그러시면 어디서 이리도 훌륭히 성장하셨나이까?”

“여덟 살에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천행으로 전 통판 이 공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두어 주시고 사위로 삼아 주신 은덕으로 몸을 보존했나이다.”

노승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러하시면 그 댁 남자가 호 씨 소생이니까? 최 부인 소생이니까?”

“존사(尊師)가 어찌 이 통판 댁에 전실(前室)과 후실(後室)이 있음을 아나이까? 나는 최 부인 사위로소이다.”

“그러면 남자와 이별할 때 무슨 표적을 남겼었나이까?”

대원수 장풍운이 놀라며 대답했다.

“어려서 입었던 저고리로 신물(信物)을 삼았나이다.”

노승이 다시 물었다.

“경운 공자를 연경사에 두셨나이까?”

대원수가 어쩔 줄 몰라서 황급히 고마워하며 말했다.

“존사는 부모와 남자 있는 곳을 아는가 보오니 그만 조롱하소서.”

노승이 웃고 뒤로 들어갔다 오더니 아이 옷을 내어놓으며 물었다.

“이 옷을 이르시나이까?”

대원수가 한 번 보매 가슴이 막혀 말을 못 하니, 노승이 기뻐하며 말했다.

“남자를 보시려거든 진주투심\*을 내어놓으소서.”

대원수가 주머니 속에서 투심을 꺼내어 노승에게 주었다. 노승이 들어가 이를 남자에게 주니, 남자가 보고는 통곡하다가 기절했다. 양 부인도 또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즘음에 이 일을 당하여 통곡하다가 정신을 잃으니, 제승(諸僧)이 붙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진주투심: 진주로 만든, 머리에 꽂는 장식품.

2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는 장풍운이 대원수로서 책임자라는 생각에 동의하였다.
- ② 번달은 장풍운의 함정에 걸려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 ③ 장풍운은 고을 태수를 통해 가족이 지내는 거처를 확인하였다.
- ④ 장풍운은 승려들의 울음소리에 동요되어 자신의 가정사를 떠올렸다.
- ⑤ 장풍운과 경패 남자는 이별할 때 주고받은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

2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반전함으로써 사건 전개에 긴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특정 사건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며 인물의 뛰어난 지략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구체화함으로써 선악의 대립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교차하여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적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하여 인물의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2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꿈과 현실을 이어 주는 존재이고, ㉡은 꿈의 비현실성을 자각하게 하는 존재이다.
- ② ㉠은 인물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이고, ㉡은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 ③ ㉠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존재이고, ㉡은 미래에 대처해야 할 일을 암시하는 존재이다.
- ④ ㉠은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는 존재이고, ㉡은 가족 상봉을 위한 단서를 확인해 가는 존재이다.
- ⑤ ㉠은 인물이 알지 못하는 과거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는 존재이고, ㉡은 인물의 과거를 밝혀내어 현재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24.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영웅 소설은 시련을 극복하고 전쟁을 통해 입신양명하는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로, 작품의 주인공은 대체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사회 질서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장풍운전」은 영웅 소설의 구조를 가지면서도 주인공의 신분 회복과 가문 재건, 가족 간의 갈등 해소라는 개인적 차원의 질서 회복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가정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군담(軍談)은 국가적·민족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가족의 헤어짐과 만남을 위한 장치로 등장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말해 볼까요?

- ① '서번과 서달이 합세'한 전쟁이 일어나자 장풍운이 '오랑캐를 썩 썩 없애'겠다며 천자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사회 질서의 회복을 추구하려는 인물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전쟁에서 승리한 장풍운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천자에게 향하는 대신 '부모와 낭자를 찾기 위해 '중군에 명령하여 여남으로 행군'한 것은, 헤어진 가족을 찾아서 개인적 차원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인물의 면모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장풍운의 나이 '여덟 살에' 일어난 전쟁은 장풍운이 '부모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헤어짐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고, 장풍운이 대원수로서 '크나 큰 공을 이룬 전쟁은 '모친과 경패 낭자'와의 재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만남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장풍운이 '통관 이 공'의 '은덕으로 몸을 보존'한 후 '역도의 세력이' 일으킨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것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한 인물이 전쟁을 통해 입신양명한다는 점에서 영웅 소설의 구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장풍운이 '이 통관 댁에 전실과 후실이 있음'을 노승이 알고 있는 것에 의아해하면서 자신이 '최 부인 사위'라고 밝히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이 신분 회복과 가문 재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인물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정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준과 유성양이 행장을 꾸려 임지로 떠나려 할 때 성 부인이 성준에게 말했다.

“춘 모자는 **불의한 성품을 가졌으니**, 내가 아니면 진아 부부를 보호할 사람이 없구나. 너는 아내만 데리고 가도록 해라. 내가 아들 때문에 **죽은 아우\*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다.**”

성준이 깜짝 놀라 울며 간청했다.

“제가 손이 닳고 입이 닳도록 고생하며 학업을 이룬 것은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고을 수령의 녹을 얻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하루도 봉양할 수 없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욱\*은 이제 벼슬길에 올랐으니 머지않아 두 제수(弟嫂)와 함께 서울로 갈 터인데, 숙모는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서울로 떠나 서로 멀리 떨어지면 해코지하려 한들 방법이 없을 겁니다. 설혹 사소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임수(林嫂)\*가 어질고 지혜로우니 잘 다스려서 형욱 부부를 보호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 작은 정성을 조금이나마 돌아보아 주십시오.”

성 부인은 그래도 듣지 않았다. 화진이 암암리에 ㉠사정을 알아차리고 성 부인에게 좋은 말로 간절히 권하자 성 부인이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허락했다. [A]아아! 효자의 재앙이 이로부터 끝없이 이어지니, 조물주는 또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성준과 유성양이 임지로 떠날 때 요 소저와 빙선은 옥화와 채봉의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맑은 음성으로 오열했고, 성 부인은 심 씨 모자에게 진심을 다해 ㉡당부하고 거듭 자상하게 타이르니 목석도 움직이고 귀신도 울 것 같았다.

성 부인이 떠난 뒤 심 씨가 후우 한숨을 내쉬는데, 마치 **등에 지고 있던 가시를 내려놓은 듯했다**. 심 씨는 아들과 모의했다.

“옛날 정 씨가 어질고 아름다워 인심을 얻은 데다 진처럼 기특한 자식까지 낳고 보니 그 권세가 날로 중해졌다. 그래서 상공은 장남을 제치고 **차남으로 대를 잇게 하려는 뜻을 가지기**에 이르렀고, 일가 사람들은 우리 모자를 아예 없는 사람인 듯이 취급했지. 이제 진의 두 아내는 자색과 덕성이 정 씨보다 뛰어나고, 진 또한 이처럼 귀한 자리에 올랐으니, 친척들이 추앙하고 하인들이 몰려들어 따르는 것이 예전에 비해 갑절은 될 게다. 저들이 만일 서울로 가서 위로는 황제의 총애를 얻고 아래로는 동료들의 위세를 깬다면, 용이 구름에 오르고 호랑이가 바람을 탄 형국이라 제어할 도리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든 **여기 붙잡아 두고 곤욕을 주어 상춘정\*에서의 원한을 통쾌하게 갚아 주어야겠다.**”

화춘이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화진에 대한 심 씨의 박대는 갈수록 심해지고, 화춘은 요사한 조 씨를 부인으로 맞이한다. 그러나 조 씨는 범한과 내통하며 화씨 집안의 재산을 차지할 계략을 세운다. 범한은 누굽을 시켜 화진을 죽이려 하지만 화욱의 귀신이 나타나 실패하고, 심 씨를 죽이려던 칼에는 시비 난향이 목숨을 잃는다. 화진은 이 일로 어머니 심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다.

“자네 집에는 왜 이리 변고가 많나?”

화춘이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내 팔자가 너무 사나워서 불행한 아우 하나 때문에 온갖 변괴가 일어나네.”

그러고는 ㉢고소장을 내보이며 말했다.

“자네가 한번 보고 다듬어 주게.”

범한이 다 읽고는 냉소하며 말했다.

“이처럼 큰 변고에 이렇게 졸렬한 고소장을 썼으니, 되려 자네가 죄를 받겠어.”

화춘이 놀라 겁을 집어먹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의 **훌륭한 솜씨를 좀 빌리세.**”

그러자 범한이 붓을 들어 먹물을 적시더니 수천 마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말이 너무 지독하고 참혹해서 차마 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B]아아! 화욱이 누굽의 눈앞에는 나타났으나 아들 화춘의 꿈에 나와 감화시키지는 못했고, 조물주가 난향의 혀는 잘랐으나 범한의 손목은 자르지 못했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범한이 고소장을 제 소매에 넣으며 말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일이 망하겠어.”

그러고는 백금 수백 냥을 들고 관가로 갔다.

소흥 지부(知府)\* 최형은 일찍이 화부\*의 ㉣잔치에 갔다가 화진을 본 뒤로 늘 화진을 아끼고 흠모하며 그를 위해 일하기를 소원했다. 그러던 차에 고소장을 보고는 책상을 내려치며 비통하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는 틀림없이 무고다!”

화진이 아전을 따라 관아에 이르자, 최형이 문목\*을 꺼내 물었다. 범한은 팔짱을 끼고 중계 아래에 꿏꿏이 서 있었다. 화진은 문목 내용을 다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변고에 휘말린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속 깊이 말 못 할 고통을 느꼈다.

‘운명이다, 운명이야! 내가 **거짓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장차 어머니와 형이 어찌 되겠나?’

마침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진실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죄가 이미 다 드러났으니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최형이 안쓰러워 긴 한숨을 쉰 뒤 화진에게 말했다.

“죄인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구나! 어미가 고소장을 냈으니, 효자가 어찌 차마 일일이 사실을 해명할 수 있겠는가. 옛날 동해의 효부가 없는 죄를 자백하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고을의 태수는 끝내 어리석다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찌 무고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범한이 소리쳤다.

“죄인이 제 죄를 알아 군말 없이 자백했으면 마땅히 처벌하실 일이지, 왜 다른 ㉥평계를 만들어 죄인이 말을 바꾸도록 유도하십니까?”

최형이 매우 노하여 범한을 붙잡아 끌어내리게 한 뒤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네놈은 성이 범가면서 왜 화씨 가문의 일에 끼어들어 감히

이처럼 요망한 말을 하느냐?”

최형은 범한의 머리채를 잡아 쫓아내게 하고, 화진을 우선 옥에 가두었다. 범한은 보따리에서 돈을 꺼내 옥졸들에게 나눠 주며 화진을 독살할 음모를 꾸몄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죽은 아우: 화춘과 화진의 아버지인 화욱을 가리킴.

\*형옥: 화진을 가리킴.

\*임수: 화춘의 아내인 임 씨를 가리킴.

\*상춘정: 화춘과 화진이 지은 시를 화욱이 듣고, 집안을 망칠 아이는 춘이고, 일으킬 아이는 진이라고 말했던 장소.

\*지부: 지역의 일을 맡아보는 벼슬.

\*화부: 화씨 집안.

\*문목: 죄인을 신문(訊問)하기 위하여 죄목을 적어 놓은 문서.

2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성 부인이 성준의 제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상황을 의미한다.
- ② ㉡: 심 씨 모자가 화진에게 앙심을 품게 된 계기에 해당한다.
- ③ ㉢: 최형이 화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과거의 자리를 가리킨다.
- ④ ㉣: 화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을 나타낸다.
- ⑤ ㉣: 효자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면 재앙이 따른다는 최형의 말을 가리킨다.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도덕적 실천과 사회적 보상의 관계를, [B]는 비도덕적 행위와 사회적 처벌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A]는 선행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B]는 악행을 방조하는 존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A]는 운명의 힘에 저항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B]는 운명의 힘에 맞선 인간의 비극적인 최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긍정적 인물이 겪을 불행한 일에 대한, [B]는 부정적 인물의 죄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의 사건을 요약함으로써 사건의 발생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고소장**을 중심으로 윗글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고소권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더라도 권리의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반하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데, 허위 사실에 근거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피고소인을 해할 목적으로 고소에 이른 경우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 ① 심 씨는 화진의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고소권을 행사하였다.
- ② 최형은 고소인이 권리의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반하여 고소권을 남용하였다고 생각하였다.
- ③ 화춘은 외형상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화를 피하고자 하였다.
- ④ 최형은 피고소인의 자백이 고소장과 일치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범한은 허위 사실을 고소장에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화춘을 종용하였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창선감의록」은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집[家]'이 서사의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는 가문 소설이다. 부귀를 겸비한 이러한 공간은 그 안팎에서 욕망의 대상이 된다. 집안의 후계자가 되거나 가권(家權)을 장악하려는 욕망, 외부인이 그 집안의 부귀를 차지하려는 욕망, 재건하거나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는 욕망 등이 그것이다. 집안에서 시작된 갈등은 점차 외부인이 개입된 갈등으로 확대되는데, 그릇된 행실을 일삼는 존재가 갈등을 유발한다면, 바람직한 질서를 유지·실현하려는 존재에 의해 이러한 갈등은 해소된다.

- ① 성 부인이 '죽은 아우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다'며 성준의 임지로 동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불의한 성품을 가진 심 씨와 화춘이 그릇된 행실로 집안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성 부인이 떠난 뒤' 심 씨가 '등에 지고 있던 가시를 내려놓은 듯했다'는 것은, 가권을 장악하려는 심 씨의 욕망이 바람직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성 부인의 부재로 인해 드러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심 씨가 화옥에게 '차남으로 대를 잇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며 집안에서 화진의 입지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집안의 후계자는 장남인 화춘이어야 한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화진을 '붙잡아 두고 곤욕을 주어' '원한을' 갚겠다던 춘 모자가 범한의 '훌륭한 솜씨를' 빌려 화진을 고소하는 것은, 화씨 집안에서 시작된 갈등이 외부인이 개입된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화진이 '죄가 이미 다 드러났으니 죽음이 있을 따름'이라며 '거짓으로 자백하'는 것은, 화씨 집안의 부귀를 차지하려는 범한의 숨겨진 욕망이 최형에게 드러나도록 하여 가문 재건을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안평 대군의 옛집인 수성궁에서 잠든 유영은 꿈속에서 궁녀 운영과 안평 대군이 총애했던 문인 김 진사를 만나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우연히 마주친 후 서로를 깊이 연모하게 된 운영과 김 진사는 편지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운영과 함께 서궁에 머무는 궁녀 자란은 운영이 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계책을 세운다.

어느 밤 자란이 제게 몰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중 사람들이 해마다 추석이면 **탕춘대 아래 시냇가**에서 빨래하며 술자리를 벌인단다. 올해는 그리로 가지 말고 **소격서동**에서 놀자고 해서 오가는 사이에 그 무당을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은 계책일 거야.”

저도 그렇게 여기고 **추석이 오기만을 고대**하니 하루가 3년처럼 느껴졌어요. 비취가 자란의 말을 얼핏 듣고도 걸으려는 모르는 체하며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궁궐에 왔을 때는 얼굴빛이 배꽃과 같아 화장하지 않아도 천연 그대로의 아리따운 모습이 있었지. 그래서 궁중 사람들이 너를 **곽국 부인\***이라고 불렀잖니. 그런데 요사이엔 얼굴이 예전만 못해 점점 처음 모습을 잃어만 가니 무슨 까닭이니?”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체질이 허약해서 늘상 더운 철만 되면 더위 먹는 병이 있다가 오동잎이 떨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시절이 되면 저절로 조금씩 낫는단다.”

비취가 시 한 편을 장난스레 지어 주었습니다. 온통 저를 희롱하는 뜻을 절묘하게 담았더군요. 저는 비취의 재주가 대단하다 여기면서도 저를 조롱한 데에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밤이면 서늘한 바람이 일고 가녀린 국화가 노란빛을 토해 내며, 풀벌레들은 소리를 가다듬고 하얀 달은 빛을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내심 기뻐**지만 마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은심이 말했습니다.

“**③편지**에서 말하던 아름다운 기약이 오늘 밤으로 다가왔구나. 인간 세계의 즐거움이 어찌 천상과 다르겠니?”

저는 서궁 사람들에게 이미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이실직고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남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 줘.”

이때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고 옥 같은 이슬이 방울져, 맑은 시내에서 빨래할 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궁인들과 날짜를 잡았으나 **①장소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지요. 남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시내와 깨끗한 돌로 치자면 탕춘대 아래보다 좋은 곳이 없어.”

반면 서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격서동의 산수도 성문 밖 경치에 못지않는데, 가까운 곳을 놓아두고 하필 먼 곳에서 찾을 이유가 무어람?”

남궁 사람들이 **⑥고집**을 부리며 우리 말을 듣지 않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자란이 말했습니다.

“남궁 다섯 사람 중에 소옥이 **의견을 주도**하고 있더구나. 내가 기묘한 피로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중략)

금련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②의논**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점을 한번 쳐 볼게.”

즉시 『주역』을 펴고 점을 쳐서 점괘를 언더니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운영이 필시 장부를 만나겠구나. 운영은 용모와 자태가 인간 세계 사람이 아닌 듯해서 주군이 마음을 쏟은 지 이미 오래지. 그렇건만 운영이 죽기로 거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인의 은혜를 차마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야. 주군은 비록 지엄하시나 운영이 몸을 상할까 저어하여 함부로 가까이하지 않으셨어. 이제 이 적막한 곳을 놓아두고 저 변화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왈패 소년들이 저 자색을 본다면 그중에 분명 녀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될 자가 있을 것이요, 비록 가까이 다가오진 못한다 하더라도 손가락질하며 눈길을 보낼 터이니 이 또한 욕을 당하는 것이야. 일전에 주군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궁녀가 궁궐 문을 나서거나 외간 사람이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죄는 모두 사죄(死罪)에 해당한다’**고 하셨지. 나도 이번 **④나들이**에 참여하지 않겠어.”

자란은 일이 틀렸음을 알고 풀이 죽어 시무룩한 얼굴로 인사하고 물러가려 했습니다. 그때 비경이 울며 비단 허리띠를 잡고 만류하더니 앵무배에 운유주를 따라 권하기에 모두들 함께 마셨습니다. 이윽고 금련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만남은 일이 잘되도록 주선해 보려는 것이었는데 비경이 우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구나.”

비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남궁에 있던 때에는 운영과 매우 친하게 지내며 생사와 영육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지. 지금 비록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하나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어? 일전에 주군께 문안드릴 때 대청마루 앞에서 운영을 보니 가느다란 허리가 더욱 야위었고 얼굴은 초췌하며 목소리는 실낱처럼 힘이 없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듯했어. 일어나 절하다가 힘없이 땅에 엎어지기에 내가 부축해서 일으키고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

‘불행히도 병에 걸려 조만간 죽을 것 같아. 내 미천한 목숨이야 끊어진들 아까울 게 없지. 다만 나머지 아홉 사람의 문장과 재주가 날로 발전해 훗날 아름다운 시편들이 온 세상을 흔들 텐데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 이 때문에 슬픔을 금하지 못하겠어.’

[A] 그 말이 너무도 서글프고 절절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단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병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 시작된 거였어. 아아! 자란은 운영의 벗이라 다 죽어 가는 사람을 태을사로 데려가 천상으로 인도하려 하거늘, 만일 오늘의 계획이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영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그 원망은 남궁으로 돌아올 테지?

『서경』에 이르기를 ‘선을 행하면 백 가지 상서로움을 내려 주고, 악을 행하면 백 가지 재앙을 내려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벌인 의논은 선일까, 악일까? 소옥이 이미 찬성했으니 이제 세 사람의 뜻이 찬성으로 모였는데 어찌 중도에서 그만둘 수 있겠어? 설사 일이 탄로 난다 해도 그 죄는 운영 혼자 입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소옥이 말했습니다.

“나는 두말하지 않겠어. 마땅히 운영을 위해 죽을 테야.”

자란이 말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반, 반대하는 사람이 반이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야.”

자란이 일어나 가려다가 돌아와 앉더니 다시 각자의 뜻을 탐지해 보았습니다. 개중에는 찬성하고 싶지만 말을 바꾸는 것이 수치스러워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었지요. 자란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에는 정도(正道)가 있고 ㉠권도(權道)\*가 있는데, 권도를 써서 합당함을 얻는 것 또한 정도야. 변통하는 권도 없이 앞서 한 말만 고집스레 지킬 이유가 어딴어?”

그러자 모두들 일제히 찬성하였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곽국 부인: 당나라 현종의 비(妃)인 양 귀비의 언니. 미모를 자부하여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황제를 대했다고 함.

\*권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

29. ㉠에 대한 인물들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궁 사람들은 거리상의 이점을 들어 ‘탕춘대 아래 시냇가’를 적정 장소로 제안하고 있다.
- ② 서궁 사람들은 빼어난 경관을 비길 만한 곳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격서동’을 적정 장소로 제안하고 있다.
- ③ 금련은 변화한 곳에서 마주한 위험한 사건을 회상하며 ‘탕춘대 아래 시냇가’와 ‘소격서동’ 모두 적정 장소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 ④ 비경은 구성원의 일부만 찬성한다면 비밀이 탄로 날 수 있다며 ‘소격서동’이 적정 장소라는 제안에 찬성하고 있다.
- ⑤ 소옥은 운영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내린 결단을 바꿀 생각이 없으며 ‘소격서동’이 적정 장소라는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30.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운영전」은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이라는 제한된 정보가 주변 인물들에게 확산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작품입니다. ㉠은 자란, ㉡는 자란을 제외한 서궁 궁녀들, ㉢는 남궁 궁녀들, ㉣는 안평 대군이라고 할 때, 윗글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말해 볼까요?

- ① ㉠은 ㉡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정보에 ㉢가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이 활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는 ㉢~㉣에게 제한되어 있는 정보가 ㉣에게 확산될 것을 우려한 ㉣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는 ㉣만이 제한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문제로 인해 마련된 ㉢와 ㉣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는 제한된 정보에 접근한 ㉢와 ㉣가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도록 ㉣를 설득하여 추진하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는 ㉣가 제한된 정보에 접근하게 될 상황을 예상하여 ㉢가 ㉣를 위해 제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병색이 완연했던 운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운영의 말을 인용하여 운영을 만났을 때 느꼈던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운영과 나눈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보상과 처벌은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의 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영에게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운영전」의 공간인 '수성궁'은 안평 대군과 궁녀들의 수직적 관계와 궁녀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외부와 단절된 수성궁은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핵심 공간으로, 궁녀들은 협조하고 화합하면서도 경쟁 구도에 놓여 있어서 항상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된 궁녀들 사이의 갈등, 궁녀로서의 금기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갈등 등은 모두 수성궁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궁녀들은 개인적 욕망을 억누른 채 엄격한 규율에 복종해야 하는데, 애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운영과 김 진사의 욕망은 신분 제도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한다.

- ① '추석이 오기만을 고대하던 운영이 '청명한 가을이' 오자 '내심 기'빠한 것은, 신분 제도라는 장애물 앞에서도 김 진사와의 애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자란이 남궁 궁녀들의 '의견을 주도하고 있'는 소옥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서궁과 남궁의 궁녀들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군.
- ③ 금련이 '궁녀가 궁궐 문을 나서거나 외간 사람이 이름을 알게 되면' '사죄에 해당한다'는 안평 대군의 명령을 언급하는 것은, 서궁에서 주선하려는 일은 궁녀로서의 금기를 위반하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음을 상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운영에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눈치챘으면서도 비경이 자란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규율에 복종하기 위해 개인적인 욕망을 억눌러야 하는 운영의 심정을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자란이 '다시 각자의 뜻을 탐지'하며 설득하자 남궁 궁녀들이 '모두들 일제히 찬성하'는 것은, 수성궁의 폐쇄성이 와해되어야만 수직적 관계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우리 모꼬지에 조용히 좌(座)를 정(定)하여 예법을 정(正)할 것이거늘, 한갓 요란만 하고 무례하니, 아무리 우리 모꼬진들 해연치\* 아니하라.”

노루란 놈이 턱을 끄덕이며 웃어 왈,

“말씀이 가장 유리하니, 원컨대 선생은 좋은 도리를 가르쳐 좌정케 하소서.”

토끼 모든 손님을 돌아보아 가로되,

“내 일찍 들으니 ‘조정(朝廷)은 막여작(莫如爵)이요 향당(鄉黨)은 막여치(莫如齒)\*’라 하오니,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연치(年齒)\*를 차려 좌를 정하소서.”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펄쩍 뛰어 내달아 왈,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 상좌(上座)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고, 암탉걸음으로 영금영금 기어 상좌에 앉으니,

여우란 놈이 생각하되, ‘저놈이 한갓 허리 굽은 것으로 나이 많은 체하고 상좌에 앉으니, 난들 어찌 무슨 간계로 나이 많은 체 못 하리오.’ 하고 나룻\*을 쓰다듬으며 내달아 왈,

“내 나이 많아서 나룻이 세었노라.”

한 대,

노루 답 왈,

“네 나이 많다 하니, 어느 갑자(甲子)에 났는가? 호패\*를 올리라.”

하니,

여우 답 왈,

“소년 시절에 호협(豪俠)하기를 좋아하여 주색청루에 다닐 적에 술이 대취(大醉)하여 오다가, 대신(大臣) 가지는 길 건넌 다하고 호패를 떼어 이때까지 찾지 못하였거니와, 천지개벽한 후 처음에 황하수(黃河水) 치던 시절에 나더러 힘세다 하고 가래 장부(丈夫) 되었으니, 내 나이 많지 아니하리오? 나는 이러 하거니와 너는 어느 갑자에 났느냐?”

노루 답 왈,

“천지개벽하고 하늘에 별 박을 때에, 날더러 궁통하다\* 하여 별자리를 분간하여 도수를 정하였으니, 내 나이 많지 아니하리오?”

하고, 둘이 상좌를 다투거늘,

두꺼비 곁에 었드렸다가 생각하되,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로 나이 많은 체하니 난들 거짓말 못 하리오.’ 하고, 공연히 건넌 산을 바라보고 슬피 눈물을 흘리거늘,

여우 꾸짖어 왈,

“저 흉간한 놈은 무슨 설움이 있기에, 남의 경연에 참례(參禮)하여 상상치 못한 형상을 뵈느냐?”

두꺼비 답 왈,

“저 건너 고향나무를 보니 자연 비참하여 그리하노라.”

여우 왈,

“고향나무 빈틈으로 네 고조할아버지가 나오던 구멍이냐? 어찌 설위하느냐?”

두꺼비 정색 대(對) 왈,

“네 주둥이만 살아 어른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거니와, 네 귀가 있거든 내 설위하는 바를 들어 보라. 내 소년 때에 저 나무 세 주를 심었더니, 한 주는 맏아들이 별 박는 방망이로 베고, 한 주는 둘째 아들이 황하수 칠 때에 준천부사(漣川府使)\* 하여 가랫장부\* 하려고 베었더니, 그 나무 벤 동티\*로 두 아들이 다 죽고, 다만 저 나무 한 주와 내 목숨만 살았으니, 내 그 때에 죽고만 싶으되 천명인 고로 이때까지 살아 있다가, 오늘 날 저 나무를 다시 보니 자연 비감하도다.”

여우 왈,

①“진실로 그러하시면 우리 중에는 나이 제일 높단 말인가?”

두꺼비 답 왈,

“네 아무리 이러한 짐승인들 그중에도 소견이 있을 것이니, 생각하여 보면 네 고고(高高) 존장(尊丈)\*이 넘으니라.”

토끼 이 말을 듣고 끓어 여쭙되,

“그러하시면 두껍 존장이 상좌에 앉으소서.”

**[중략 부분 줄거리]** 두꺼비가 우위를 차지한 것에 분노한 여우는, 두꺼비와 세상 구경한 바를 겨루려 하지만 오히려 만물의 근본도 모른다고 무시당한다. 이에 여우는 하늘에 올라가 직녀성\*을 거쳐 남극노인성\* 등을 구경했다고 꾸며 대며 두꺼비를 조롱하고자 한다.

“구경을 다 한 후에 회정(回程)하여 한 곳에 다다르니, 만첩산곡 초목이 무성한 곳에 초당 삼간이 반공(半空)에 걸렸거늘, 바라보니 거문고 소리 들리는지라. 다리도 아프고 담배도 한 대 먹고자 하여 들어가니, 한 노인이 동자에게 명하여 차 한 그릇과 실과 한 그릇과 술 삼 배를 주거늘 먹은즉 죽히 요기되는지라.

노인 왈,

‘노처(老妻)는 병으로 괴로이 지내거니와, 그 병 근본은 베 짜다가 얻은 병이 십여 년이 넘었으되, 종시 감세 없고 점점 극중하여 백약이 무효하고 곡기 끊은 지 오랜지라. 의원에게 물은즉 베를 살라 술에 타 먹으라 하기로 그리하여도 조금도 효험이 없으니, 지금은 죽기만 바라노라.’

하거늘,

가만히 생각하니 직녀성에 베를 피었던 돌이 응당 약이 될 듯하여 노인께 고(告) 왈,

‘내게 좋은 약이 있으니 아무리 병세 극중하여도 이 약을 써 보소서.’

하고 그 돌을 갈아 술에 타서 공복에 한 보시기 먹으니 즉시 쾌차한지라.

이 노인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무수히 칭찬하여 왈,

‘천만뜻밖에 그대를 만나 죽을 사람을 살렸으니 은혜 각골난 망이라.’

하고 품속에서 붉은 구슬을 주며 왈,

‘이 구슬 한 개를 삼키면 산수에 다닐 때에 몸이 변화하느니라.’

하거늘, 받아 삼키고 그길로 인간에 내려오니 정신이 쇠락(灑落)하고 변화하였노라.”

하니,

두꺼비 답 왈,

“그러하면 그때 나도 보탑상(寶榻床)에 올라가 남극노인 성으로 더불어 바둑 두다가 술이 대취하여 난간에 의지하였더니,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깨어 동자더러 물으니.

[A] 동자 대 왈, ‘밖에 어떠한 짐승이 빛은 누르고 주둥이 뽀쪽하고 도적개 모양 같은 것이 똥 발 채 왔다.’ 하거늘.

동자에게 명하여, ‘긴 장대로 쫓아라!’ 하였더니, 그때 네가 왔던가 싶다. 네가 온 줄 알았다라면 천일주 먹은 똥덩이나 먹여 보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니, 좌중이 박장대소하더라.

- 작자 미상, 「두껍전」

\*해연치: 몹시 이상스러워 놀랍지.

\*조정은 막여작이요 향당은 막여치: 조정에서는 벼슬이 높음을, 시골 동네에서는 나이 많음을 무겁게 여김.

\*연치: ‘나이’의 높임말.

\*나룻: 수염.

\*호패: 조선 시대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지니고 다니던 패.

\*궁통하다: 깊이 연구하여 통달하다.

\*준천부사: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일을 맡은 책임자.

\*가랫장부: 농기구인 가래의 자루와 넓죽한 바다.

\*동티: 땅, 돌, 나무 따위를 잘못 건드려 재앙을 받는 일.

\*존장: 자기 아버지와 벗으로 사귀는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직녀성: 거문고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로, 칠월 칠석날 밤에 소를 치는 견우와 베를 짜는 직녀가 만난다는 고사가 전해짐.

\*남극노인성: 중국 고대 천문학에서 사람의 수명을 맡아본다고 믿었던 별을 의인화한 것임.

\*‘이 구슬 한 개를 ~ 변화하였노라.: 여우가 처녀로 둔갑하여 소년과 구슬을 주고받으며 놀았다는 여우 구슬 설화에서 나옴.

33.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끼는 모임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리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② 두꺼비는 웃어른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여우가 상좌에 앉을 수는 없다며 비난하였다.
- ③ 노루와 여우는 노화를 보여 주는 걸모습이 나이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두꺼비는 노루와 여우의 논쟁을 바탕으로 두 인물보다 연장자라고 주장하기 위한 거짓 이야기를 만들었다.
- ⑤ 여우는 육체적 능력을, 노루는 정신적 능력을 내세우며 땅과 하늘의 일부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뽐내었다.

34. ㉠과 같이 반응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꺼비만이 고향나무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여우가 두꺼비의 고조할아버지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 ③ 두꺼비의 두 아들이 두꺼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④ 두꺼비의 두 아들이 여우와 노루가 했다는 일의 연장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 ⑤ 여우와 노루의 나이는 추정 불가능한 것과 달리 두꺼비의 나이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5.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을 상기함으로써 여우의 기억이 왜곡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② 여우에게 결례를 범한 일을 인정하면서 착오에서 비롯된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③ 여우가 만나고 싶어 하는 인물과의 경험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우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 ④ 여우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과거에 확신하지 못했던 일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 ⑤ 여우가 구경하고 왔다는 장소에서 동 시간대에 겪었다는 일을 제시함으로써 여우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두껍전」은 '상좌'를 두고 벌이는 논쟁을 통해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설정되는 작품이다. 경쟁적 관계에 있는 인물들은 서로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허구적인 사건을 지어내기도 하고, 설화, 중국의 역사, 고사 등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꾸며 내어 자기 과시를 위한 근거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적절한 현실적 근거를 요구하거나 관련 지식을 끌어들이며 주장을 반박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말하기는 정직할수록 욕망을 채우는데 불리한 상황에서,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상좌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여우가 '영금영금 기어 상좌에 앉은 노루를 보고 '어찌 무슨 간계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노루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거짓된 말하기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호패를 올리라'는 노루에게 여우가 '호패를 떼여'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말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구적인 사건을 지어내어 상황을 무마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여우가 '슬피 눈물을 흘리'는 두꺼비에게 '저 흉간한 놈'이라며 꾸짖는 것은, 두꺼비의 정직하지 않은 말하기가 자신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여우가 '베 짜다가 얻은 병'의 치료 약으로 '직녀성에 베틀 괴었던 돌'을 노인에게 내어 주었다고 한 것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두꺼비에게 자기 과시를 위한 근거로 직녀성에 얽힌 고사를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여우가 하늘에서 노인에게 받은 '붉은 구슬'을 삼키고 '인간에 내려'와 '몸이 변화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상좌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설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강홍립은 조선 선조 때부터 광해군 때에 이르기까지 요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지킬 중신으로 평가받는다. 1618년에 후금이 명나라를 침공하자, 명나라에서는 후금을 협공하자는 편지를 조선에 보내고,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강홍립을 원수로 임명하여 군대를 출정시킨다.

군대가 대동강을 지날 때까지는 별일이 없었다. 평안도는 변화한 곳이라, 홍립은 이르는 곳마다 **느긋하게 술을 마시며** 군대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종사관 이민환\*이 틈을 봐 이렇게 말했다.

“오랑캐가 재앙을 일으켜 사해를 진동시키매 주상께서 좌불안석하시며 **오랑캐 소탕**의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즉각 전쟁 준비에 나서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흥기시켜 주상 전하의 기대에 부응하고, 원수의 직분을 다하여 적을 무찌름으로써 **명예를 드높일** 일입니다. 그렇건만 어찌하여 일없이 세월을 보내며 술잔이나 기울이고 계신단 말입니까? 병사들이 이를 보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홍립이 태연히 대답했다.

“㉠그대에겐 **항우의 용맹이** 없고 나 또한 **초나라 장군 송의가** 아니거늘, 어찌 싸움터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모든 일에는 완급이 있는 법이고 주상께서 내리신 ㉡**밀지(密旨)**가 내게 있으니, 그대는 걱정 말라!”

이민환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A]“**밀지**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홍립이 말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테니, 여러 말 하지 말라.”

이민환이 감히 더 묻지 못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진중(陣中)의 장수들은 모두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목숨을 걸고 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건만, 원수라는 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밀지가 있다는 허튼소리나 하고 있소. 군사를 일으켜 적을 정벌하려 나선 판에 밀지가 있어 싸우지 않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이 오!”

장수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자 이민환이 이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원수의 속마음을 아직 헤아릴 수 없소. 선불리 선동했다가는 우리 군대에 이로울 것이 없으니, 우선 참고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선천 군수 김응하는 홍립에게 싸우려는 뜻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먼저 한 부대를 이끌고 앞서가서 적과 맞서 보겠다고 청하였다. 홍립이 허락한 뒤 보병 5천 명을 내주며 이 부대를 좌영(左營)이라 하고 선봉으로 삼았다. 또 운산 군수 이일원으로 하여금 우영(右營)을 이끌게 하고, 자신과 김경서\*는 다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중영(中營)이 되어 의주에 머물렀다.

(중략)

이튿날 행군을 시작하매 두 나라의 병사들이 긴 대오를 이루

었다. 사흘을 행군하여 우모령에 이르자 홍립이 유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군량이 떨어져 병사들이 굶주려 있으니 적병을 만나면 반드시 케멸될 것입니다.”

유정은 어쩔 수 없어 행군을 하루 멈추고 군사들을 머물러 있게 했다. 그러자 유격 교일기가 유정에게 소리 높여 말했다.

“조선 병사들에게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 움츠리고 앉아 사태를 관망하려는 것입니다. 저 음험한 속을 헤아릴 길이 없군요!”

마침내 칼을 뽑아 금세라도 벨 듯 홍립을 겨누었다. 조선의 장수들도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군량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늘 바닥이 났다고 말하여 중국 장수의 화를 돋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홍립이 말했다.

“나에게 밀지가 있으니,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거요.”

장수들이 말했다.

[B] “밀지에 오직 물러나 움츠리고 있으라고만 써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던 그때이니 밀지를 열어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립이 말했다.

“머칠 돌아가는 사정을 보는 게 좋겠소.”

홍립은 즉시 만주어 역관 하서국 등 세 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오랑캐의 사정을 완전히 정탐하지 않은 채 중국 장수의 말만 듣다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몰래 건주로 들어가서 누르하치\*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해라.

‘우리 두 나라는 본래 원수진 일이 없거늘, 이번에 군대를 일으킨 것은 남조\*의 꾀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군대가 마주친다면 서로 무기를 쓰지 말고 강화(講和)\*를 맺도록 합시다.’”

그러고는 밀봉한 편지 한 통을 주어 보냈다.

하서국 등이 급히 말을 몰아 건주로 들어가서, 먼저 누르하치의 장자(長子)인 귀영가를 만나 보고는 찾아온 뜻을 자세히 말한 뒤 밀봉한 편지를 전했다. 귀영가가 들어가 말을 전하자 누르하치는 편지를 뜯어본 후 하늘에 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남조의 군대가 길을 넷으로 나누어 달려오고 있지만 나의 근심은 다른 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이 한 곳에 있었다. 요동백쯤이야 채찍으로 후려치면 그만이지만, 내가 두려워한 것은 조선이 저들을 돕는 일이었다. ㉢**옛날 요나라의 10만 정에 부대가 홍화진까지 쳐들어간 적이 있었지만, 수레 한 대도 돌아오지 못했다.** 듣건대 조선은 병사들이 **군세고 무기가 훌륭하다** 하니 대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자진해서 **항복하는 글을 보냈으니**, 이 어찌 하늘이 우리로 하여금 금나라의 유업을 잇게 하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 권척, 「강로전」

\*이민환: 강홍립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였다가 후금의 포로가 됨.

- \*김경서: 강홍립 휘하의 부원수로 출전함.
- \*유정: 조선군과 연합한 명나라군의 장수.
- \*누르차치: 후금의 초대 황제. 청나라 발전의 기틀을 세움.
- \*남조: 명나라를 가리킴.
- \*강화: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됨.

(나)

전 판서 신(臣)은 진실로 황공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절하고 주상 전하께 상언하옵니다.

삼가 아뢰옵니다. 신은 본래 병든 사람인 데다 나이가 많아 망령이 들었는데, '머리카락을 뽑을 만큼 죄가 많다.'는 글\*에 가슴이 무너졌고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히는 변란 때에 본정신을 잃었으니, ㉠형체야 아직 살아 있지만 정신은 이미 죽어서 마치 흙덩이와 나무토막과 갈사와 다시는 조정에 서서 벼슬살이할 희망을 가지지 않았고, 타향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조석(朝夕)으로 목숨이 다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남한산성에 호종(扈從)\*했던 신하들이 모두 상가(賞加)\*를 받는다고 들었사온데 신의 이름도 그중에 들어 있으니, 신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끝내는 부끄럽고 두려웠으며, 열흘이 가고 한 달을 넘겨도 더욱 스스로가 편안치 못합니다.

저 남한산성에 대가(大駕)\*가 머물렀을 때, 대신들과 집정자들은 다투어 성 밖으로 나가시기를 권하였지만 신은 감히 죽기로써 지켜야 한다는 의리로 망령되게 탐전(榻前)\*에 아뢰었으니, 신의 첫 번째 죄이옵니다.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문서의 문장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손으로 그 ㉡초안을 찢어 버리고 묘당(廟堂)에서 통곡하였으니, 신의 두 번째 죄이옵니다. 양궁(兩宮)\*께서 친히 오랑캐의 진영에 나아가는데, 말 앞에서 머리를 부숴서라도 막지 못했고 병으로 또 대가를 따라가지 못했으니, 신의 세 번째 죄이옵니다. ㉢신은 이 세 가지 죄를 짓고서도 오히려 형벌을 면하고 있는데, 어찌 감히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의 말고삐를 잡고 따랐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똑같이 은전(恩典)을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미 내리신 명을 속히 거두시어 권장하고 징계하는 도리를 밝히소서. 신과 같은 자가 외람되어 그 곁에 끼어 있으면 고쳐 바로잡으라는 공론(公論)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도, 멀리 떨어진 시골에 있고 문건도 미치지 못하면서 외람되어 이렇게 번거롭게 아뢰고 있으니 어찌 그릇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또 신이 삼가 생각건대, ㉣여름이나 겨울이 그치지 않는 한 가죽옷과 갈포(葛布) 옷을 없애서는 안 되니, 적국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싸우고 지키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원수를 갚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복수하는 뜻을 가다듬으시고 최후의 보루가 될 성을 더욱 수축하시어 국가가 또다시 치욕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 한때 **강요된 화친(和親)\*의 맹약을 믿지** 마시고 지난날 명나라의 크나큰 덕을 잊지 마시며, 호랑이나 이리같이 사납고 무자비한 자들의 인(仁)을 너무 믿지 마시고 부모와 같은 명나라를 가버이 단절하지 마셔야 하는데, 누가 능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하를 위

하여 간절하고도 간절하게 진계(陳戒)\*하겠습니까?

무릇 부모의 나라와 원수가 되고 **오랑캐에 의해 부림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끄러운** 바이니, 선왕께서 천자에게 올린 글에 쓴 '만절필동(萬折必東)\*'이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옷깃을 적시나이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소서. 신은 제정신을 잃고 또다시 망발을 하였으니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신은 너무도 두려워 떨리고 애타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

- 김상헌, 「호종상가사면상소(扈從賞加辭免上疏)」

- \*'머리카락을 뽑을 만큼 죄가 많다.'는 글: 청에 보내기 위해 최명길(崔鳴吉)이 작성한 국서(國書)를 가리킴.\*호종: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여 따르던 일.
- \*상가: 상으로 품계를 올려 주던 일.
- \*대가: 임금이 타던 수레.
- \*탐전: 왕의 자리 앞.
- \*양궁: 인조와 세자.
- \*화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 \*진계: 신하가 임금에게 이변에 대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상소를 올리는 일.
- \*만절필동: 강물은 만 번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으로, 변함없는 충절을 강조한 말.

37.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민환은 강홍립의 느긋한 행동에 담긴 의중을 파악하기 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장수들을 설득하였다.
- ② 김응하는 전투태세를 갖추지 않은 강홍립을 대신하여 조선군을 삼영으로 편제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 ③ 유정은 전투력 저하에 대한 강홍립의 우려를 외면하지 못하였다.
- ④ 유격 교일기는 행군을 멈추려는 강홍립의 의도를 불순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누르하치는 조선이 지원군을 보내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다.

38. (가)의 [A]와 [B]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담긴 오류를 드러내고 있고, [B]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A]는 확인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B]는 확인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A]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고, [B]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기존의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 ④ [A]는 존재를 알지 못했던 대상에 대한 놀라움을 표출하고 있고, [B]는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⑤ [A]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B]는 문제 상황에 대한 석연치 않은 대응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9.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가)와 다음 글은 모두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장수로서 '강홍립'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상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글을 ㉠라고 할 때, (가)와 ㉠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말해 볼까요?

**1619년 2월 27일**

이때 3영이 가져온 군량은 다 떨어졌지만 후속 군량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졸이 행군하면서 정강이가 부르르고 피가 흘러 명나라 군대와 이어서 진을 치지 못하니…….

**1619년 3월 3일**

3영의 군졸이 못 먹은 지 여러 날이 지났다. …… 원수(강홍립)가 3영으로 하여금 각 초(중대)에서 군사를 보내 부락을 약탈하고 땅속에 숨겨진 곡식을 빼앗아 돌로 찢어 죽을 만들어 먹게 했다.

**1619년 3월 4일**

두 원수(강홍립과 김경서)는 서로 의논하여,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만, 만일 한 차례 화해하여 퇴각한다면 3,000~4,000명 군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목전의 변방 방어 문제도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여기고, 부원수가 갑주와 검을 갖추고 기병 둘을 데리고 나갔다.

— 이민환, 『책중일록』

- ① (가)에는 ㉠와 달리 명과 후금 사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선의 정책이 드러나 있습니다.
- ② ㉠에는 (가)와 달리 후금과의 화해를 결정하게 된 아군의 피해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 ③ (가)와 ㉠에는 모두 강홍립과 명나라 장수 간의 갈등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 ④ (가)와 ㉠에는 모두 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홍립의 행동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 ⑤ (가)는 지배층 간의 권력 투쟁을, ㉠는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0. (가)의 ㉠와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아군의 전술을 마련하는 토대라면, ㉡는 적군의 전술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② ㉠은 인물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면, ㉡는 국가의 패배를 인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은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라면, ㉡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 ④ ㉠은 작성 주체의 실추된 권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는 상대방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은 상대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라면, ㉡는 상대방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이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들보다 상대방과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② ㉡: 적군의 규모를 추정하여 전략적으로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역사적인 패전 사례를 바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여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 과거에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모두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임금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변함없는 계절의 순환에 대비하듯이 적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를 수호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명나라로부터 입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대명 의리(對明義理)’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의 작가는 강홍립의 휘하로 심하 전투에 참전했던 인물이다. ‘강 씨 오랑캐 이야기’라는 제목은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에 항복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서, 패전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한 작가의 처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병자호란 중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고, 승산이 있는 전쟁에서 적과의 강화를 먼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 글은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호종 공신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 공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을 임금에게 전하기 위해 쓴 것이다.

- ① (가)에서 ‘목숨을 걸고 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장수들과 ‘느긋하게 술을 마시며’ ‘거드름을 피우’는 원수의 태도를 대비한 것은, 심하 전투 패배의 책임을 강홍립의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누르하치에게 ‘항복하는 글을 보’낸 인물이 조선군의 원수 강홍립이라는 것은, 홍립을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에 항복한 ‘강 씨 오랑캐’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작가의 처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의 글쓴이가 ‘상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웠’다며 ‘강요된 화친의 맹약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지 않았던 남한산성 호종에 대해 공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성 밖으로 나가’길 권한 ‘대신들과 집정자들’과는 달리 ‘죽기로써’ 남한산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리’를 강조한 것은 적과의 강화를 먼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오랑캐 소탕’이 원수로서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나)에서 ‘오랑캐에 의해 부림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로부터 입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대명 의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서울에 사는 방탕한 이춘풍은 선대의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평양 기생 추월에게 유혹당해 호조에서 빌린 돈 이천 냥까지 모두 잃고 추월의 사환 노릇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을 하고 평양 감사의 회계 비장\*으로 춘풍 앞에 나타난다.

[A] 이때 회계 비장이 춘풍의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탐문했구나. 하루는 비장이 추월의 집을 찾아갈 제, 사또께 아뢰고 천천히 찾아가니, 춘풍의 거동이 기구하고 불만하다. 봉두난발 덩수룩한데 얼굴조차 안 씻어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십 년이나 안 뺨 옷을 도롱도롱 누비어서 그렇저렇 없애 입었으니, 그 추한 형상에 뉘가 아니 침을 뱉으리오. 춘풍이 제 아내인 줄을 꿈에나 알라마는 비장이야 모를쏜가.

분한 마음 감추고 추월의 방에 들어가니, 간사한 추월이는 회계 비장 호리려고 마음먹어 회계 비장 엿보면서 교태하여 수작타가 각별히 차담상을 차려 만반진수 들이거늘, 비장이 약간 먹고 사환하는 걸인 놈을 상재로 내어 주며 하는 말이,

“불쌍하다. 저 걸인 놈아. 네가 본디 걸인이나? 어이 그리 추물이나?”

춘풍이 엿드려 여쭙되,

“소인도 경성 사람으로서 그리되었으니 사정이야 어찌 다 말씀 드리리까마는 나리님 잡수시던 차담상을 소인 같은 천한 놈에게 상재 물려주시니 태산 같은 높은 은덕 감사무지하여이다.”

비장이 미소하고 처소로 돌아와서 수일 후에 분부하여,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 매고,**

“이놈, 너 들어라. 네가 춘풍이나? 너는 웬 놈으로 막중한 나랏돈 **호조 돈을 빌려** 쓰고 평양 장사 내려와서 사오 년이 지나가되 일 푼 상납 아니하기로 호조에서 공문을 내려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죽기를 사양치 말라.”

하고 사령에게 호령하여,

“각별히 매우 처라.”

하니, 사령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장하니, 춘풍의 약한 다리에서 유헤이 낭자한지라.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려 하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하고 사령을 불러,

“너 매 잡아라. 춘풍아 너 들어라.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느냐? 투전을 하였느냐? 주색에 썼느냐? 돈 쓴 곳을 아뢰어라.”

춘풍이 형틀 위에서 울면서 여쭙되,

“소인이 호조 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와서 내 집 주인 **추월이와 일 년을 함께** 놀고 나니 한 푼도 없어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리님 분부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비장이 본래 추월이라 하면 원수같이 아는 중에,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호령하여 사령에게 분부하되,

“네 가서 그년 잡아 오라. 바빠 바빠 잡아 오되, 만일 지체 하였다가는 네가 중죄를 당하리라.”

하니 사령이 덜미 집어 잡아 왔거늘,

“형틀 위에 올려 매고 별태장 골라잡고 각별히 매우 처라.

사령, 너는 사정을 두었다가는 네 목숨이 죽으리라.”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매마다 표를 하며 십여 대를 중장하며,

“이년, 바빠 다짐\*하여라.”

호령을 서리같이 하는 말이,

“네 죄를 네가 아느냐?”

추월이 여쭙되,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

비장이 이 말 듣고 성을 내어 분부하되,

“여담절각(汝-折角)\*이라 하는 말을 네 아느냐? ㉢불같은 호조 돈을 영문(營門)\*이 물어 주랴, 본관에서 물어 주랴? 백성에게 수렴하랴? 네 이 지경에 무슨 잔말을 하랴?”

군뢰 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형장을 높이 들어, 백일청천에 벼락 치듯, 만첩청산 울리듯 금장 소리 호통치며 하는 말이,

“㉣네가 일정 발명치 못할까? 너를 우선 죽이리라.”

하고 주장대로 찌르면서 오십 대 중장하고,

“바빠 다짐 못 할쏘냐?”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혼백이 달아난 듯 혼미 중에 겁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애걸하여 여쭙되,

“국법도 엄숙하고 관령도 지엄하고 나리님 분부도 엄하오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분부대로 소녀가 바치리다.”

비장이 하는 말이,

“호조에서 공문을 보내 ‘너를 바빠 죽이라’ 하였으되, 네 죄를 내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마’ 하니 너를 살려 주거니와, 호조 돈 이자를 이 할로 하여 오천 냥을 **모두 보내 바치라.**”

추월이 여쭙되,

“십 일 말미를 주옵시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하고 다짐을 써서 올리거늘,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을 다시 불러 가만히 약속하되,

“열흘 안으로 모두 받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또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나 올라가니, 네가 서울에 올라오거든 문안하여라.”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여쭙되,

“나리님 **덕택으로 호조 돈을** 갚았습니다.”

(중략)

춘풍이가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갈 제, 이때 춘풍의 아내 문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어이 그리 더디 온가? ㉤장사에 이익은 많았으며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사이 잘 있었는가?”

하고 열두 바리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려 들이거늘, 춘풍이 온갖 교태 다할 적에 기구하고 불만하다.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쳐 보고 젓가락도 이리저리 박으며 하는 말이,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고, 자반 생선에도 기름이 적고, 쇠고기도 맛이 없네. 평양으로 갈까 보다. 호조 돈 아니면 올라

오지 않았을 것을. 내일 호조 돈을 다 바치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감영 내 작은집에 가서 음식 좀 먹어 보소.”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춘풍 아내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 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고 흐늘거리며 들어오니, 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하는지라. 비장이 호령하되,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 한들 그다지 거만하냐?”

- 작자 미상, 「이춘풍전」

\*비장: 감사, 사신 등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조선 시대의 무관.

\*다짐: 지은 죄를 진술하거나 죄목을 인정하는 글.

\*여담절각: 너의 집 담이 아니었으면 내 소의 뿔이 부러졌겠느냐는 뜻으로, 남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억지를 쓰는 말.

\*영문: 감사가 일을 보던 관아.

4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월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비장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눈치를 살폈다.
- ② 춘풍은 비장의 차담상을 받아 들고 자신의 불합리한 처지를 토로하였다.
- ③ 비장은 형벌을 받느라 몸이 상해 가는 춘풍의 상태를 염려하였다.
- ④ 추월은 호조의 공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장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 ⑤ 춘풍의 아내는 춘풍을 속일 작정으로 평양에 돌아갈 때 춘풍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4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적인 율격의 언어 배열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병치하여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부정적인 형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두 인물이 상대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45.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의 경우, 질문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화자의 확신, 강조, 비난, 설득 등의 태도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 의문문은 실제 의도가 문장의 문법적 형태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윗글의 ㉠~㉣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 ① ㉠은 청자에게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 의문문으로, 춘풍이 호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 있다는 비장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은 실제 의도가 문장의 문법적인 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 의문문으로, 춘풍의 돈을 유용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려는 추월의 태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은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호조에서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은 일반적인 의문문의 유형으로, 추월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겨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⑤ ㉤은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한 의문문으로, 이익이 없는 장사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한 춘풍에게 반어적으로 비난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춘풍전」은 도덕적인 개선의 대상과 개선을 주도하는 인물이 서사를 이끌어 가는 풍자 문학이다. 풍자의 주체는 부정적인 현실을 폭로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존재이다. 이 작품에서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을 내세워 당대의 허황된 풍조를 비판하고, 화폐 경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주인공만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서사적 상황은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① 비장 차림을 한 춘풍의 아내가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 매고' '매를' 치는 것은, 풍자의 주체로서 부정적인 현실을 폭로하고 이상적인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춘풍이 장사하겠다고 '호조 돈을 빌려 쓰고' '추월이와 일 년을 함께 놀'다가 빈털터리가 된 상황은, 화폐 경제 시대의 허황된 풍조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비장이 추월을 추궁하여 '춘풍이 가져온 돈을' '모두 보내 바치'도록 하는 것은, 춘풍의 아내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리님 덕택으로 호조 돈을 갚았'다고 감사를 표하던 춘풍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온갖 교만 다'하는 것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인물의 어리석음을 보여 줌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춘풍의 아내가 '여자 의복 벗어 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고' 춘풍에게 호령하는 장면은, 개선의 대상이 이끌어 가던 서사가 개선을 주도하는 인물이 이끌어 가는 서사로 전환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현대운문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애비는 종이였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흠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려나.

찬란히 트여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들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나는 왔다.

- 서정주, 「자화상」

(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새우 끓어넘는 도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 장터」

4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 ③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관조적 태도로 풍경을 바라보며 대상이 지닌 외적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4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태생적 한계를 밝히며, 화자의 녹록지 않은 운명을 드러낸 것이다.
- ② ㉡: 가난으로 인해 고되게 살아가는 삶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 시련으로부터 도피해 왔던 삶에 대한 성찰이 담긴 것이다.
- ④ ㉣: 화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 순간들을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 ⑤ ㉣: 힘겨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는 화자의 회고를 드러낸 것이다.

49. (가)와 (나)의 천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치'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의 '천치'는 삶의 획일성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② (가)의 '천치'는 화자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나)의 '천치'는 화자가 살아갈 수 있는 가정된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③ (가)의 '천치'는 화자가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이유를, (나)의 '천치'는 화자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이유를 보여 준다.
- ④ (가)의 '천치'는 화자 내면의 혼란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나)의 '천치'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가)의 '천치'는 외부의 평가로 인한 화자의 수동적 태도를, (나)의 '천치'는 외부의 평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능동성을 보여 준다.

50.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선 자아의 방랑에 대한 고백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음을 고백하며, 부정적인 현실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당당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그에 대한 인식을 다른 대상에 투영하기도 한다. 한편 방랑이 아닌 정착에 대한 의지를 품고 있지만, 결국은 방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수용하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방랑의 운명은 때로는 윗대로부터 이어받은 것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는데, 이는 역마살과 같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적 인식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① (가)의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라는 고백은 고통스럽던 과거가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외할아버지'와 닮은 화자가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겠다고 한 것은 윗대로부터 자신에게 이어져 온 힘든 현실을 수용하는 당당한 태도를 보여 준 것이겠군.
- ③ (나)의 '하늘'과 '땅'이 하는 말은 자신을 방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다른 대상의 목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찬란히 트여 오는 어느 아침'과 (나)의 '석삼년에 한 이레'는 방랑이 아닌 자아의 정착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때이겠군.
- ⑤ (가)의 '시의 이슬'에 섞인 '피'와 (나)의 '산서리'는 화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상처와 고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51~5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매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  
 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  
**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찌 먼 앞대 조용한 **개포**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궐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  
**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  
**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  
 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  
 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  
 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즈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나)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 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 안도현, 「연탄 한 장」

5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희미한 십오 축 전등'과 '때글은 다 낡은 무명사쓰'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형상화하면서 화자의 빈곤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는 모습은 '늙은 어머니'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뜻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은 '좁다란 방'과 대비되며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궐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는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며 화자의 단절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어린것'은 '어여쁜 사람'과 함께 화자가 '쓸쓸한 얼굴'로부터 벗어나도록 위로를 해 주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52. 그 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추억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길이다.
- ② 다른 이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와 관련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는 길이다.
- ③ 사회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화자의 비판 의식을 보여 주는 길이다.
- ④ 화자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혼자 걸어 나가는 길이다.
- ⑤ 화자가 오랫동안 꿈꿔 온 이상적인 공간으로,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분리되는 길이다.

5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결핍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정서나 태도를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여 고백하기도 한다. (가)는 자신이 있는 공간의 사물을 통해 현실의 외로움과 가난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며 고독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부정적 요소들을 승화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일상적 사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현실의 이기적인 태도를 넘어선 자기희생적 태도를 강조한다. 이는 타인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의 자세를 제시한 것이다.

- ① (가)의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나'의 고백은 현실의 결핍을 인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겠군.
- ② (나)의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렵다는 고백은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뒤 공허함을 느꼈던 화자의 과거 모습을 고백한 것이겠군.
- ③ (가)에서는 '이 흰 바람벽'이라는 사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외로움이라는 내적 정서를 심화하였다면, (나)에서는 '연탄'이라는 주변의 사물을 통해 타인을 위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였군.
- ④ (가)에서는 '그러하듯이'에 해당하는 사물들과 인물들을 나열하며 고독한 존재라는 화자의 정체성을 부각한 것이라면, (나)에서는 '연탄 차'라는 일상적 사물에 아름다운 행위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겠군.
- ⑤ (가)에서 '글자들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는 것은 화자가 스스로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시각화한 것이라면, (나)의 '산산이 으깨는'은 '연탄'의 이미지를 통해 타인을 위한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54~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의 강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나르다가  
깜깜한 절벽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부딪치곤  
까무라쳐 돌아온다

한 장 검은 표지(表紙)를 열고 들어서면  
아비규환하는 화약 냄새 소용돌이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 버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해후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꿈길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축축이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 정한모, 「나비의 여행」

(나)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  
나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A]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높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體溫)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B]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낱으로

[C]

그 순수(純粹)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다)

까치 소리는 반갑다.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하게 짓는 단 두 음절 '깍깍'. 첫 '깍'은 높고 둘째 '깍'은 낮게 계속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 음정(音程)이 그저 반갑다.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날은 기분이 좋다.

반포지은(反哺之恩)을 안다고 해서 효조(孝鳥)라 일러 왔지만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좋다. 사랑 앞마당 밤나무 위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그것이 길조(吉兆)라서 그해에 안변 부사(安邊府使)로 영전(榮轉)이 되었다던가, 서재(書齋) 남창 앞 높은 나뭇가지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글재주가 크게 늘어서 문명(文名)을 날렸던가 하는 옛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까치 소리는 반갑고 기쁘다.

아침 까치가 짓으면 반가운 편지가 온다고 한다. 이 말이 가장 그럴싸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반가운 소식의 예고같이 희망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까치뿐이 아니라 까치집을 또 좋아한다. 높은 나무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영성하게 엮어 놓는 것이, 나무에 그대로 어울려서 덧붙여 놓는 것 같지가 않고 나무 삭정이가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소쇄한 맛이 난다. ㉡영성하게 엮어 놓는 그 어리가 용하게도 비가 아니 샌다. 오직 달빛과 바람을 받을 뿐이다.

나는 항상 이담에 내 사랑채를 짓는다면 꼭 저 까치집같이 소쇄한 맛이 나도록 짓고 싶었다. 내가 완자창이나 아자창을 취하지 않고 간소한 용자창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정서에서다. 제비집같이 아늑한 집이 아니면 까치집같이 소쇄한 집이라야 한다. ㉢제비집은 암전하고 단아한 가정부인이 매만져 나가 는 살림집이요, 까치집은 쾌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이 거처하는 집이다.

비둘기장은 아무리 섹스럽게 꾸며도 장(場)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집은 새 보금자리, 새 둥지, 이런 말을 쓰면서 오직 제비집, 까치집만 집이라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이나 정서를 알 수가 있다. 한국 건축의 정서를 알려는 건축가들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인 듯하다.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보면 아무리 고급으로 지었다 해도 그것은 '사람장'이지 '집'은 아니다.

지금은 아침 여덟 시, 나는 정릉 안 숲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나뭇잎들은 아침 햇빛을 받아 유난히 곱게 푸르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맑다. 그간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물소리도 제법 크게 들려온다.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길 와 본 적이 있었다. 보건 운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속이 한없이 고요하다. 지금이 제일 고요한 시간이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이른바 까치걸음이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깡충깡충 뛰놀고 있다.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민화(民畵) 하나를 생각한다. 한 노옹(老翁)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신기한 그 상상화에 기쁨을 느꼈다. 민화란 어린아이와 자유화(自由畵) 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奇拔)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이지봉(李芝峯)이 정호음(鄭湖陰)의 “산과 물이 바람에 소리치며, 강물은 거세게 울먹이는데, 달은 외로이 비쳐 있다.”는 시를 보고 ‘강물이 거세게 이는데 달이 외롭게’라는 건 실경(實景)에 맞지 않는다고 폄(貶)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달이 고요히 밝은 밤중에는 물결이 잔잔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김백곡(金栢谷)이 황강역(黃江驛)에서 자다가 여울 소리가 하도 거세기에 문을 열고 보니 달이 외롭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구가 실경을 그린 명구(名句)인 것을 알았다는 시화(詩話)가 있다. 나도 그 민화가 실경인 것은 모르고 기상(奇想)\*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의 민화 한 폭이 다시금 눈앞에 뚜렷이 떠오른다.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누워서 잠자는 노옹(老翁), 그 배 위에서 서 있는 까치 한 마리.

- 윤오영, 「까치」

\*기상: 좀처럼 짐작할 수 없는 별난 생각.

\*태고연한: 아득한 옛 모습 그대로인 듯한.

5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요소를 나열하며 대상이 지닌 양면성을 드러낸다.
- ③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며 상황의 반전 가능성을 강조한다.
- ④ 자연물을 통하여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⑤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부각한다.

5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아가’가 체험하는 꿈의 전반적인 과정이 요약적으로 드러난다.
- ② 1연에서는 ‘아가’가 떠나는 꿈의 여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2연에서는 ‘아가’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제시된다.
- ④ 3연에서는 2연에서 경험한 상황으로 인한 ‘아가’의 피로감이 드러난다.
- ⑤ 4연에서는 ‘아가’의 꿈속 여행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물으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56. ㉠와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약한 시적 대상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 ②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조정하는 존재이다.
- ③ 시적 대상에 대한 위로의 정서를 환기하는 존재이다.
- ④ 좌절한 시적 대상의 내적 성장을 유도하는 존재이다.
- ⑤ 시적 대상이 내적 불안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는 존재이다.

57.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새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들을 제시하고, 그 행위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낸다.
- ② [A]에서는 새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이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태도를 지닌 존재임을 제시한다.
- ③ [B]에서는 의도성이 없는 새의 행위를 통해 새의 꾸밈없는 태도가 부각된다.
- ④ [B]에서는 인간과 새의 소통이 지닌 의미가 드러난다.
- ⑤ [C]에서는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A]와 [B]에서 드러난 양상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5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교적 아름다움이 아닌 소리 자체에 반가움을 느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걸모습과 달리, 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 ③ ㉢은 새에 따른 새집의 특성을 글쓴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집의 분위기와 연결하고 있다.
- ④ ㉣은 글쓴이가 현대 주거 형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민화가 지닌 기발한 상상력이 실제와 그대로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던 글쓴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59.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에서 날개를 지닌 존재들은 종종 이상적인 순수성이거나 이상적인 삶을 상징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현실 인식이나 태도에는 차이점이 나타난다. (가)에서는 순수한 존재의 날갯짓이 극한 현실로 연결되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공포를 보여 주며, 이는 순수한 존재가 느끼는 좌절과 이에 대한 위로로 연결된다. (나)에서는 날개를 가진 존재가 지닌 이상적인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순수를 파괴하는 인간의 차갑고 폭력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비판적 인식이 나타난다. (다)에서는 날개를 가진 존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더불어 그 대상이 지닌 속성을 글쓴이의 이상으로 연결지며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순수한 존재인 '아가'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내일의 바다'를 날다가 '깜깜한 절벽'이라는 현실을 만나는 모습은 현실의 공포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나)에서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사랑을 나누는 '새'의 모습은 이상적인 순수성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다)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사랑채를 '까치집같이 소쇄한 맛이 나도록 짓고 싶었다'고 표현한 것은 대상이 지닌 속성이 글쓴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④ (가)에서는 '나래'를 '기진맥진 접는' 모습을 통해 순수한 존재가 느끼는 좌절감을 드러낸다면 (다)에서는 '노옹'의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경외감이 드러나는군.
- ⑤ (나)의 '피에 젖은' '새'는 인간의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달리 (다)의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까치 소리를 들'은 것에 대한 글쓴이의 진술에서는 '까치'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군.



[60~6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나)

- ┌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 한계령썸을 넘다가  
┌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 [A]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 오오, **눈부신 고립**
- [B]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 밭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 [C]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 까야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 [D]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 ┌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 [E] 난생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6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나)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며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청유형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가 바라는 상황으로 대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활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6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불순한 것과 단절된 존재이다.
- ② ㉡은 이상적 현실에 도달하는 존재이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존재이다.
- ④ ㉡은 ㉠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존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부정적 현실에서 고통받은 존재이다.

62.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상황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 운명의 변화를 꿈꾸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도움을 주는 대상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고 상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도움을 주는 대상의 이면을 인지하고 대상이 지닌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
- ⑤ [E]: 자신이 바라는 상황이 지금껏 일어난 적이 없었던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6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자연물은 시적 화자의 내면이나 현실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동일한 소재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형상화되는가에 따라 정서의 차이와 자아의 관계성 및 자아의 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가)와 (나)는 모두 '눈'을 핵심 소재로 설정하지만, (가)는 자연물의 감각적 속성을 강조하며 외부의 억압과 그로 인한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 내면의 저항 의지를 표현하는 반면, (나)는 자연물로 인한 폐쇄적 공간의 형성과 그 공간에서의 자발적 고립을 꿈꾸며 자족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는 '기침을 하자'를 반복하며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드러내는군.
- ② (나)에서 '눈부신 고립'은 고립된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화자가 꿈꾸는 자발적 고립을 드러내는군.
- ③ (가)의 '눈은 살아 있다'와 (나)의 '동화의 나라'는 모두 핵심 소재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가)의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성이 드러나지만, (나)의 '뜻밖의 폭설'은 화자가 소망하지만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의외성의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 ⑤ (가)의 '눈'은 외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매개체이고, (나)의 '흰 것'은 폐쇄적 공간을 형성하여 '양식'이 필요한 대상들과 연대하는 화자의 자족감을 부각하는 소재이군.

[64~6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찢어진 시」

(나)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부는 한지(寒地)의 바람

바다 앞의 집들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낮게 비치는 불빛

지전(紙錢)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꺼 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①배 있는 데로 내려간다.

정박 중의 어두운 용골(龍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는 수삼 개(數三個)의 눈송이  
하늘의 새들이 따르고 있었다.

- 황동규, 「기항지 1」

\*용골: 선박 바닥의 중앙을 받치는 길고 큰 재목

64.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인이란 슬픈 천명'에서는 시를 쓰는 삶으로 인한 괴로움과 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
- ②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에서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과는 다른, 가족의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다.
- ③ '어린 때 동무들'을 '죄다 잃어버렸다는 것에서는 과거와 다른 현실에서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서는 자문의 형식을 빌려 혼란스러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는 혼란스러운 내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6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긴 눈을 피하기 위해 온 곳이다.
- ② 육지의 끝이자 화자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곳이다.
- ③ 화자가 자유에 대한 동경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곳이다.
- ④ 추운 바람이 부는 곳으로 화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곳이다.
- ⑤ 특정 공간에 안주하고자 하는 화자의 욕구를 강화하는 곳이다.

6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적 화자는 자신이 있는 현실과 그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내면을 조율하기도 한다. (가)에서는 자신이 있는 공간과 구체적인 사물들을 활용하여 내적 혼란과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대면하며 부끄러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나)에서는 배를 타고 떠도는 중 잠시 머무르는 기항지라는 특정한 공간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방랑하는 현실과 정착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을 드러낸다. 또한 외부의 사물들을 묘사함으로써, 화자의 내적 성찰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며, 특정 공간에서 포착한 다른 대상을 통해 화자가 나아가야 할 바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육첩방'이라는 공간에서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에 대해 토로하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나는 무얼 바라'라는 물음에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를 연결 짓는 것은 혼란스러운 내면을 조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부동적 이미지인 '바다 앞의 집'을 유동적 이미지인 '바람'이 흔드는 것은 정착의 욕망과 방랑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가)에서는 '학비 봉투', '대학 노트'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해야 할 바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적 혼란을 드러내고, (나)에서는 '항구'라는 특정 공간에서 본 '하늘의 새들'을 통해 방랑하는 삶과의 결별이라는 지향점을 보여 준 것이겠군.
- ⑤ (가)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는 성찰을 통해 내면을 대면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의 '용골들이 '항구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은 외부 대상을 통해 화자의 내면 성찰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67~7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 이 어디노  
오고 나니 기힘타 아아 물도 많고 산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아 축도지란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 이 어디노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불귀로다 내 고향아 ㉠새더라면 떠가리라 아하하

임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왜 못 가네  
오다 가다 야속타 아아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로다 내 몸이야 아아 삼수갑산 못 벗어나다 아하하  
- 김소월, 「삼수갑산 -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나)

뒤편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뒤편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뒤편카노 뒤편카노  
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카노 뒤편카노 뒤편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다)

태상 칠위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하늘 위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시며  
지하 북풍에 죽을 운명 벗기실까  
죽기도 운명이요 살기도 하늘인데  
진채지액\*을 성인도 못 면하니  
죄 없이 잡힌 것을 군자인들 어이하리  
오월 서리가 눈물로 어리는 듯  
삼 년 가뭄도 원통함으로 일어나네  
㉠역경에 빠진 사람이 고금에 한둘이며  
늙은 신하에게 서러운 일도 많고 많다  
하늘과 땅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한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나라 걱정에 원한만 쌓였으니  
차라리 애꾸눈 말같이 눈감고 지내고저  
넓고 아득하여 못 믿을 조물주로다  
이러나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도척은 온전히 놓고 백이는 아사하니\***  
도척 죽은 곳이 높은가 백이 죽은 곳이 낮은가  
장자의 책에 의견이 분분하네  
지난날 부귀영화 생각하면 서럽구나  
㉢고향의 묘소를 꿈에 가 만져 보고  
조상의 묘를 꿈 깬 후에 생각하니  
구곡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졌네  
음산한 기운이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신과 불여우의 집합소인지  
도깨비 귀신이 우글우글하는 곳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 됐나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임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련과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중략)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빈산의 해골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 되어 있어  
비바람 뿌리는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오랜 세월 윤회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눈 속에 혼자 피어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달빛 아래 그림자가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여운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동풍이 유정하여 그윽한 향기 불어 올려  
고결한 이내 생애 대숲에나 부치고저

빈 낚싯대 비껴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한강 건너 저어 궁궐에 가고 지고  
 그래도 한 마음은 궁궐에 달려 있어  
 누추한 곳에서 임 향한 꿈을 깨어  
 한 점 서울을 눈 아래 바라보고  
 그릇하든 옳게 하든 이 몸의 탓이던가  
 이 몸이 전혀 몰라 하늘길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복희씨 육십사괘 천지 만물 생긴 뜻을  
 주공\*을 꿈에 뵈고 자세히 묻고 싶네

- 조위, 「만분가」

\*진채지역: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초나라의 초빙을 받아 가는 도  
 중 진나라와 채나라의 땅에서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곤란을 겪은  
 사건.

\*혼돈이 죽은 후: 혼돈과 관련된 중국의 전설. 인간이 자연을 파  
 괴하였음을 의미함.

\*관색성: 천한 사람의 감옥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작가의 유  
 배지를 가리킴.

\*도척은 온전히 놓고 백이는 아사하니: 도척은 중국 춘추 시대의  
 큰 도적이요, 백이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치는 것을 만류하  
 였으나 듣지 않자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살다  
 가 굶주려 죽은 인물로, 도척은 호의호식하고 충신은 굶주려 죽  
 는 현실을 개탄함.

\*주공: 주나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무왕이 죽자 왕권을 장악하라는 주변의 유  
 혹을 물리치고 어린 성왕을 훌륭히 보필하였으며, 공자가 그를  
 후세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인물로 격찬함.

6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쇄법을 활용하여 시상의 흐름을 연결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특정 시구를 반복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6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고립감을, ㉡는 화자의 자유로움을 부각한다.
- ② ㉠은 화자의 현실 도피에 대한 욕구를, ㉡는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 준다.
- ③ ㉠과 ㉡는 모두 화자가 겪고 있는 갈등을 촉발시킨 대상이다.
- ④ ㉠과 ㉡는 모두 화자의 관념 속에서 화자의 소망을 이뤄 줄 수 있는 존재 혹은 매개체이다.
- ⑤ ㉠과 ㉡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대상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69. 『저편』과 『임의 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편'은 추억이 부정되는 공간이고, '임의 집'은 추억이 되살아나는 공간이다.
- ② '저편'은 이별한 대상에 대한 원망이, '임의 집'은 이별한 대상에 대한 충절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③ '저편'은 인연의 덧없음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임의 집'은 인연의 지속성이 강화되는 공간이다.
- ④ '저편'은 이별한 대상과의 재회가 이뤄지는 공간이고, '임의 집'은 대상과 이별을 하게 된 공간이다.
- ⑤ '저편'은 이별한 대상과의 단절과 연결이 모두 드러나는 공간이고, '임의 집'은 이별한 대상과 재회하고자 하는 소망이 부각되는 공간이다.

7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가 겪고 있는 것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나라를 향한 충정의 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무력한 자신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고향을 떠나 조상의 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비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임금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임금에게 그 마음이 닿지 않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며 임금 곁으로 돌아가 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7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리듬감을 형성한다. 끊어 읽기를 고려하여 시구를 배치하는 음보율이 그 예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탄사, 구어체, 특정 종결 어미를 사용하거나 반복하는 것은 시에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작품의 정서와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아하하', '아아'와 같은 감탄사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면서 화자의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군.
- ② (나)에서는 '오냐'와 같은 구어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이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와 (나)는 모두 청유형 종결 어미를 반복하며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군.
- ④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답답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⑤ (가)는 '삼수갑산 / 내 왜 왔노 / 삼수갑산 / 이 어디뇨'와 같이 4음보 율격이, (나)는 '씩어서 / 동아뺏줄은 / 삭아 내리는데'와 같은 3음보 율격이 나타나는군.

72.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별과 그로 인한 정서는 우리 문학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로, 이를 받아들이는 화자의 인식 태도와 정서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특정 공간을 바탕으로 단절감과 체념적 정서로 드러나며, (나)에서는 특정 공간에 있는 대상과 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감정을 최대한 절제한 상태로 드러난다. 한편 (다)에서는 모함을 받아 임금과 멀어지게 된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고사를 활용하여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은 하늘에서 유배를 왔다는 적당 의식과 연결된 초자연적인 대상을 등장시키며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와 같은 진술들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단절감과 체념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에서는 ‘이승 아니든 저승에서라도’라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화자의 절절함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다)에서는 ‘도척은 온전히 놓고 백이는 아사하니’를 통해 역사적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모함한 세력에 대한 분노와 임금과 단절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군.
- ④ (가)의 ‘삼수갑산’은 화자가 물리적으로 갇혀 나가기 어려운 공간으로 제시되고, (나)의 ‘강기슭’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지만 화자는 가지 못하는 특정 공간으로 제시되는군.
- ⑤ (나)의 ‘동아뱃줄’은 화자가 대상과 연결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고, (다)는 ‘옥황상제’와 같은 초자연적 대상에게 기대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군.

# 현대산문



[73~7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운은 허 노인을 무서워했다. 허 노인은 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했다.

참다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허 노인에게 속마음을 털었다.

— 아버지 저도 이젠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탔으면 합니다.

그때 허 노인은 얼굴색이 조금 변했으나 온화하게 물었다.

—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럼, 가는 줄이 넓게 보이겠구나…….

—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허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 안 되겠다!

운은 까닭을 물랐으나 더 대꾸하지 못했다. 열여덟 살이 되었다. 운은 허 노인에게 다시 같은 청을 드렸다.

— 어떡냐, 줄이 넓어 보이느냐?

—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 그래,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나?

— 예.

— 귀도 들리지 않고.

— 예.

그것도 사실대로 대답했다.

㉡— 흠, 아직도 객기가 있어…….

허 노인은 턱으로 줄을 가리켰다. 운은 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줄로 올라갔다. 사실 운은 자신이 허 노인과 같이 줄을 잘 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허 노인이 줄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천장 포장을 걷어 젖히고, 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허 노인은 흰옷에 조명을 받으며 줄을 건 너는 것이었는데,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듯 조용히 줄을 건너가는 노인의 모습은 유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땅 위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줄을 타는 노인이었지만 줄에서 내려오면 그의 온몸이 언제나 땀에 흠뻑 젖어 있곤 한 것이었다. 그리고 단장은 그런 허 노인의 줄타기를 몹시도 싫어했다.

—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내려앉게 해 주란 말야. 재주를 좀 부려, 재주를.

단장은 허 노인을 매번 나무랐다. 허 노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대꾸도 못 하고 땀만 뻘뻘 흘리다간 단장 앞을 힘없이 물러나오곤 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도 허 노인은 여전히 전처럼 줄을 탔다. 운은 누가 뭐래도 허 노인이 그렇게 줄을 타는 것이 좋았고, 자신도 그렇게 줄을 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러니까 운이 허 노인에게 두 번째로 소망을 말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줄 위에서 그렇게 유연하던 노인의 발길이 변을 한 번 일으켰다. ㉢딱 한 번, 발길이 가볍게 허공을 차는 듯한 동작을 하더니 줄이 잠시 상하반동을 했다. 허 노인은 가만히 몸을 지탱하고 있다가 곧 다시

줄을 건너갔다. 누구도 그것을 실수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객석에 눈을 두고 있던 단장은 거기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함성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줄이 상하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정도였다.

“허 노인이 줄을 잘 탔다고 하는 것은 운의 생각입니까, 혹은 노인의 생각입니까?”

나는 트럼펫의 사내가 숨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로 뛰어 들었다. 사내는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번씩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물론 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인께서 운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요.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많이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운은 나와 나이가 가장 가까웠으니까 내가 그의 심중을 비교적 많이 이해하는 편이었고, 그도 내게만은 조금씩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벌써 나팔쟁이가 다 되었으니까 웬만큼 나팔을 불어 주고 남은 시간은 대개 그 부자가 지내는 뒷마당에서 보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 노인이 한 번 발을 헛디뎠던 다음 날이었지요. 마침 그날도 나는 거기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허 노인이 아들의 줄타기를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줄 위에 있는 운이 아니라 무섭도록 줄을 쏘아 보고 있는 노인의 눈과 땀이 송송 솟고 있는 이마를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이놈 아!’ 하고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줄 밑으로 내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나는 줄 위를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냥 줄을 건너가고 있었습니 다.

— 이놈…… 너는 이 애비의 말도 듣지 않느냐?

운이 줄을 내려왔을 때 노인이 호령했으나, 그는 역시 어리둥절해 있기는 했어요. 내가 놀란 것은 그때 허 노인이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길로 곧 함께 주막 술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그날 주막에서 허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 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다.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와 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자기의 전 생애를 운에게 떠넘겨 주려는 듯한 안간힘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운은 비로소 허 노인이 끝끝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내력을 알 것 같았다.

— 아버지, 이제 줄을 그만두시고 좀 쉬십시오.

운이 말했으나 노인은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 줄에서 내 발바닥의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곳을 밟고 살겠느냐? 같이 타자.

그날 밤, 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올라섰다. 운이 앞을 서고 허 노인이 뒤를 따랐다. 운이 줄을 다 건넜을 때는 객석이 뒤 승승하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뒤를 따르던 허 노인이 줄에서 떨어져 이미 운명을 하고 만 뒤였다.

거기까지 듣고 나니, 나는 사내에게 더 이야기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허 노인이 운에게 마지막 당부를 할 때 그랬을 법한 킁킁하고 무거운 것이 사내에게서 설새 없이 흘러나왔다.

- 이청준, 「줄」

7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과거를 직접 관찰해 묘사하고 있다.
- ②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이면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 ③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④ 비현실적 상황을 제시해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과거 상황을 보여 주는 내화와 현재 상황을 보여 주는 외화가 교차하고 있다.

7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허 노인은 줄이 좁고 가늘게 보이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 허 노인은 여전히 운이 줄타기에 몰입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③ ㉢: 허 노인은 운의 줄타기 실력이 자신이 원하는 경지에 도달했는지 시험하고 있다.
- ④ ㉣: 허 노인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 줄타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계하고 있다.
- ⑤ ㉤: 허 노인은 자신의 삶과 줄타기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7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허 노인이 단장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 ② 허 노인이 운의 줄타기를 허락하지 않은 결정적 요인이다.
- ③ 허 노인이 자신의 줄타기 실력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깨닫는 계기이다.
- ④ 운이 허 노인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내력을 궁금해하는 원인이다.
- ⑤ 운이 허 노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타겠다는 소망을 세 번째로 말하게 된 계기이다.

7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줄」은 근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전통적 기예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장인 정신이 스러져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일단 기예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는 장인의 법도는 지식을 중시하는 근대적 가치관과 상충한다. 전통적 기예는 말을 통한 이론 교육이나 관념적 지식에 의한 습득보다는 연습을 통한 엄격한 수련과 체득이 선행된다. 한편 자본주의의 속물성을 추구하는 근대화의 논리는 전통적 기예의 정신적 가치를 무시한다. 이로 인해 전통적 기예를 고집하는 장인은 예술적 가치와 세속적 요구 사이에서 고통받는다. 그럼에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장인의 강직함을 통해 기예가 지닌 정신적 가치와 장인 정신의 고매함이 강조된다.

- ① '허 노인이' '언제나 뒷마당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한 것은, 엄격한 수련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기예의 법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내려앉게 할 '재주'를 부리도록 요구하는 '단장'은, 기예의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고 자본주의의 속물성을 추구하는 근대화의 논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 ③ '단장 앞을 힘없이 물러나온' 허 노인이 '전처럼 줄을 탔다'는 것은, 예술적 가치와 세속적 요구 사이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장인의 강직한 면모를 보여 준다.
- ④ '허 노인이' '운'에게 오랜 기간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 시키다가 사람들 앞에서 '줄로 오르라고' 한 후에야 '당부'를 하는 것은, 이론 교육보다 연습을 통한 수련과 체득이 선행되는 전통적 기예의 면모와 관련된다.
- ⑤ '허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안간힘'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 기예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장인 정신이 스러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낸다.

[77~8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 1 장 다큐멘터리 I. 남북 분단의 기원  
차트 3: 1945년, 미국 합동 참모 회의

해설자 3: 미국 육군 참모 총장 마셜 대장이 참모와 함께 한반도 진공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퇴장)

마셜(해설자 2): 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본은 곧 항복할 거야. 그러면 소련과는 한반도에서 부딪치게 될 텐데 적당한 경계선이 필요하게 됐어.

참모(해설자 1): 예, 각하. 그래서 한국 지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셜: (지도 위를 성큼성큼 걸어 본다.) 으흠. 몇 발짝 안 되는 나라로구만.

참모: 하지만 앞으로는 태풍의 눈이 될 것입니다.

마셜: (대동강 입구를 밟으면서 자신 있게) 여기가 인천항이지……?

참모: (그대의 무식은 나의 부덕의 소치라는 자책과 함께) 이쪽입니다, 각하.

마셜: 어쨌든 소련에게 일부를 넘겨주더라도 이 인천항과 그리고 여기 부산항은 우리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할 거야.

[A] 참모: 그래서 반쯤 가르는데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각하.

마셜: 어디 한번 선을 그어 봐.

참모: (들고 있던 몽둥이로 38선을 그은 다음에 몽둥이를 지도 위에 올려놓는다.)

마셜: (몽둥이를 양발 사이에 놓고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며) 아무래도 우리가 손해 같은데……. 평양은 어디야?

참모: 이곳입니다.

마셜: ㉠오, 예, 쑥 올라가는구만. (몽둥이를 평양 쪽으로 굴러 옮긴다.)

참모: (제지하며) 하지만 소련 쪽에선 평양을 달라고 할 겁니다. 더구나 소련은 금방 진주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아무리 가까워도 오키나와에서 출동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각하.

마셜: (인상을 쓰며) 자네 말이 맞아. 정말 골치 아픈 코리아…….

(대사가 끝나면 참모가 마셜의 모자를 받아 들고 한쪽으로 퇴장한다. 마셜은 다시 해설자가 되어 차트를 넘긴다.)

차트 4: 1945년 8월 15일

해설자 2: 1945년 8월 14일, 드디어 일제가 패망하자 미국은 마닐라에 주둔하고 있던 태평양 지역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에게 38선 이남을 접수하라는 일반 명령 제1호를 하달했습니다.

(중략)

제3장 수술

간호원: 선생님, 여기 붕대하고 가제. 그리고 옥도정기\*한 병을 간신히 구해 왔시오.

한영덕: 지혈 겸자하구 ㉠마취제를 구할 수 없을까?

간호원: 마취제 같은 건 벌써 동이 났시오. 살려만 낸다면 다행이디요. 죽는 것보단 고통이 나을 거야요.

한영덕: 어드렇게 어린것에 맨살을 썰 수 있나. 특별동 응급실에 가서 슬쩍 집어 개지고 나오면 될 터인데……. (나가려 하자 간호원이 제지하며)

간호원: 이렇게 원장 동무의 지시에 어긋나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들키면…….

한영덕: (할 수 없다는 듯이) 알겠소. 날래 시작합시다. 아이구, 많이두 굶았구만.

(두 사람이 수술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원장이 들어온다.)

원장: 한 동무! (수술하던 한영덕과 간호원 흠칫 놀란다.) 특별동에 위급한 환자를 놔두고 여기서 뭐하는 거요?

한영덕: 여기에 더 위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 중이라 꿈쩍할 수 없습니다.

원장: (화를 억제하며 수술대로 와서 지시봉으로 환자 얼굴을 가린 천을 들춰 보고) ㉡까짓, 애들을 또 낳은 거요. 지금 특별동에는 경무원이 기총 소사로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따위 일에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한영덕: 낭비가 아닙니다. 관통상은 압박 붕대 처리만 해 놓으면 몇 시간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원장: 한 동무, 고발하겠소.

한영덕: ㉢어둡습니다. 비켜 주시구래.

(원장, 입을 굳게 다물고 나간다.)

한영덕: (핀셋으로 파편을 집어 들고) 파편을 꺼냈소. 이 ㉣무쇳조각. 누구래 어디서 만들어 낸 거인지…….

(조명, 어두워진다. 포격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중략 부분 줄거리] 한영덕은 특별동 진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반역 행위자로 몰려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가족을 북에 두고 홀로 월남한다. 어느 날 아들 소식을 알기 위해 포로수용소 인근을 배회하던 한영덕은 적군의 첩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된다.

제8장 수사

심문관: 피의자는 이북에서도 의업에 종사했습니까?

한영덕: 예, 처음엔 대학에 있다가 인민 병원에서 반년간 근무했습니다.

심문관: 대학이라면 소위 김일성대학 의학부를 말하는가요? 직책과 전공은?

한영덕: 산부인과학 교수였습니다.

심문관: 인민 병원에서 직책은?

한영덕: 특별동 담당 의사였습니다.

심문관: 특별동이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한영덕: 군인과 준군인, 당원, 행정 요원과 그들의 가족을 치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심문관: 그렇다면, 그것은 피의자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았다는 증거 같은데…….

한영덕: 그때의 북한 상황을 모른다면 내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징집된 자들보다도 더 나쁜 환경 아래서 혹사당했으니까요.

심문관: 믿을 수가 없소. 후방 근무가 전방 근무보다 더 위험하고 곤란하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적의 정수분자들과 접촉, 교류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한영덕: (기합으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몇 번을 얘기해야 합니까? 난 살기 위해 월남했을 뿐이요.

심문관: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요?

한영덕: 예.

(배우, 세 명 모두 바닥에 엎드리거나 누워 쓰러져 있다.)

심문관: (카드놀이를 그만두고 일어나 한영덕을 쳐다보며) 지금은 전쟁 중이요. 이번 전쟁은 어느 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영덕: …….

심문관: 전시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술이야말로 커다란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월남했다면 **군의 관으로 입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영덕: 전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신분 보장이나 바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잠시, 침묵)

심문관: (미군 장교 앞에 부동자세를 취하며) 이상과 같이 심문했음. 아직은 공작 첩자 여부를 밝힐 수는 없으나 요시찰 인물로 추정되므로 민간 경찰에 이첩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조사 반장, 대우 박, 윤, 구! (거수경례를 한다.)

- 황석영 원작, 김석만·오인두 각색, 「한씨 연대기」

\*옥도정기: 소독에 쓰이거나 진통, 소염 따위에 쓰이는 외용약.

7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한반도에서 소련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야욕을 드러낸다.
- ② ㉡: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는 원장의 비인간성을 보여 준다.
- ③ ㉢: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원장의 양해를 구하는 한영덕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 자신이 전방의 군인들보다 열악한 노동 조건 아래에서 일했다는 한영덕의 생각을 드러낸다.
- ⑤ ㉣: 이북에서의 이력으로 볼 때, 한영덕이 첩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심문관의 생각을 나타낸다.

78.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② 한반도의 지리를 알지 못하는 인물을 강대국의 주요 결정권자로 내세워 분단의 역사를 희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 ③ 지도 위에 선을 긋는 행위를 통해 강대국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몽둥이를 소품으로 활용하여 강대국이 한 개인에게 가하는 의도적인 폭력이 일상적인 삶을 파괴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한반도 분단을 주제로 한 미군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역사에서 한국이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79.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에게 윤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는 인물이 윤리의식을 회복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② ㉠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는 원인을 제공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을 나타낸다.
- ③ ㉠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사회 구조를, ㉡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상황을 상징한다.
- ④ ㉠은 직업인으로서 인물의 사명감을, ㉡는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인물의 우월감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 ⑤ ㉠은 개인의 신념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만들어 내는 도구이다.

8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씨 연대기」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를 바탕으로 의사로서의 신념을 지키고자 한 인물의 비극적인 삶을 독특한 극적 형식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소설의 3인칭 서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해설자의 등장, 중심 서사에서 벗어난 부수적인 서사의 삽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작품은 한 명의 배우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아서 마치 역할 놀이하듯이 무대 위에서 역할을 바꾸기도 한다. 또한 일종의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대 장치를 활용하여 개인의 역사를 넘어 시대의 역사로 작품을 생각해 보도록 돕는다. 의도적으로 관객의 몰입을 차단하는 이러한 극적 형식은 관객들이 냉정한 관찰자로서 극 중 현실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차트'로 보여 주는 '1945년, 미국 합동 참모 회의'와 '1945년 8월 15일'은, 이 작품을 한영덕이라는 개인의 역사를 넘어 전쟁과 분단이라는 시대의 역사로 생각해 보도록 돕는, 일종의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대 장치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마셜'과 '참모'에 '해설자 2'와 '해설자 1'을 괄호 안에 각각 병기한 것은, 두 인물이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소설의 3인칭 서술자와 같은 해설자 역할도 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참모가 마셜의 모자를' 들고 퇴장하자 '마셜'이 '다시 해설자가 되어' '해설자 2'의 대사를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배우의 역할이 바뀌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의도적으로 관객의 몰입을 차단하고, 냉정한 관찰자로서 극 중 현실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북에서 '더 위급한 환자'를 살리려고 수술을 강행했던 한영덕이 남에서 '군의원'으로 입대할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신념을 지키고자 한 인물이 북의 첩자라는 오인 앞에서 스스로 그 신념을 버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한영덕이 월남하게 된 계기를 보여 주는 제3장과 한영덕의 월남 이후 삶을 보여 주는 제8 장이 「한씨 연대기」의 중심 서사라면, 중심인물인 한영덕의 등장 없이 '남북 분단의 기원'을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로 구성한 제1장은 중심 서사에서 벗어난 부수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겠군.



[81~8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시청 하급 관리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그’는, 20년 전에 외아들 영로를 잃고서 늙은 아내와 쓸쓸하게 살아 가고 있다.

그는 만화경을 눈에 갖다 대고 빙글빙글 돌렸다. 잘게 자른 색종이 조각들이 거울 면의 굴절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며 여러 가지 꽃 모양을 만들었다.

만화경 속의 조화는 현란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았다. 홀잎과 겹잎 꽃의 단순한 집합과 확산일 뿐이었다. 옛사람들은 만화경을 돌리며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본다고 했다.

엊그제였던가, 점심 산책에 나선 그가 주택가 골목을 벗어나 큰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위를 집요하게 맴돌며 따라오는 빛 무늬를 보았다. 어깨와 다리, 가슴팍에 함부로 와 닿는 빛을 털어 내며 눈살을 찌푸렸으나 하얗게 번뜩이는 그것이 길과 사람들 사이로 정령처럼 춤추며 뛰어다니다가 다시금 그에게로 되돌아와 얼굴에 오래 머무르자 그는 문득 얼굴이 줄어드는 공포를 느꼈다. 센 빛살에 눈을 뜨지 못하며 그는 소리쳤다. 누구냐, 거울 장난을 하는 게. 그때 췌췌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미장원 층계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날카롭게 모가 선 거울 조각이 들려 있었다. 다치면 어찌려고 그러니. 그러나 아이는 말했다. 유리 가게에 가서 동그랗게 잘라달라고 하면 된대요. 내일 유치원에서 만화경을 만들 거예요. 만화경은 뭐든지 다 보이는 요술 상자래요. 그러면서 아이는 길을 건너 달려갔다. 뭐든지 다 보인다고? 그는 아이의 등 뒤에 대고 물었으나 물론 진정한 호기심은 아니었다. 단지 의미 없는 되물음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제 낮, 그는 놀이터의 벤치에서 그 애의 가방과 함께 놓인 만화경을 보았다. 집으로 오는 동안을 참지 못해 도중에 유치원 가방을 팽개쳐 두고 자전거 가게로 달려가는 그 애의 버릇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는 이 요술 상자를 통해 무엇을 들여다보았을까. 그는 아이의 눈이 되어 아이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만화경을 집어 들었다. 그것을 품에 감추고 어제 오후 내내 그는 잃어버린 만화경을 찾기 위해 헛되이 모래 더미를 헤치는 아이를 지켜보았다. 내 만화경을 누가 훔쳐 갔어요. 전시회에 낼 거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아이는 울면서 벌써 수십 번이나 들여다보았을, 가방과 만화경이 놓였던 긴 의자 밑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뭐든지 볼 수 있대요. 그는 아이의 말을 흉내 내어 중얼거리며 빠르게 만화경을 돌렸다. 돌리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유리와 거울과 색종이가 어울려 모였다 흩어지는 모양이 다양해졌다. 그것은 어쩌면 빠른 속도로 분열하고 번식하는 병원균과도 같았다. 색종이의 선명한 색감 때문인지도 몰랐다.

(중략)

치약 묻힌 칫솔로 표면에 달라붙은, 칼국수를 먹고 난 뒤의 고춧가루 따위 찌꺼기를 꼼꼼히 닦아 내자 틀니는 싱싱하고 정결하게 빛났다. 틀니의 잇몸은 갓 떼어 낸 살점처럼 연분홍빛으로 건강해 보였다. 그는 혈떡이며, 치약 거품을 가득 물고

허영게 웃고 있는 이빨들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으로, 청년처럼 검은 머리는, 무너진 입과 줄아든 인중, 참혹하게 파인 볼 때문에 더 젊어 보였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틀니가 담긴 물컵을 머리맡에 놓고 퇴침을 베고 누웠다. 잠에 빠지는 과정은 언제나 어둑신하고 한없이 긴 회랑(回廊)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았다. 어쩌면 이미 혼백이 되어 연도(羨道)\*를 걸어가는 것이나 아닐까.

열린 방문으로 아내의 모습이 뻘뻘 보였다. 혼곤하게 빠져드는 가수\* 상태에서 아내의 손은 반죽을 굴굴려 몸체를 만들고 귀와 뺨을 세우고 꼬리와 다리를 만들어 붙였다.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형체였다. 아내는 그것을 이미 만들어진 다른 것들과 나란히 별이 드는 마루턱에 세우며 웅얼웅얼 낮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흉몽에 시달리셨다 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했어요. 흉몽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지 머리가 아파서 나쁜 꿈만 꾸는 것인지는 그분 자신도 몰랐어요.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고 장님에게 경을 읽히기도 했지만 그 무서운 두통을 낮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름난 대목\*이었다는 아내의 조부 이야기는 그도 몇 차례인가 들어 알고 있었다…… 새벽이고 밤중이고 흉한 꿈에 놀려 비명을 지르고 깨어나면 머리가 아파서 미친 사람처럼 온 집 안을 뒹굴며 다녔지요. 할머니는 그 양반이 뒷자리에 집을 많이 지어 그런 거라고 말했지요. 그는 회랑의 어슴푸레한 모퉁이에서 흰 끈을 머리에 동이고 비명을 질러대는 등 굵은 노인의 뒷모습을 본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상한 짐승의 모양을 손칼로 깎았지요. 코끼리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참 이상한 모양이었지요. 맥(黻)이라던가, 나쁜 꿈을 먹는 짐승이래요. 중얼거리는 동안에도 아내의 손이 쉽 없이 반죽을 떼어 내어 형체를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타구\*와 함께 머리맡에 두었어요. 때문에 타구에 가득 낀 가래침은 마치 맥이 밤새 먹고 이른 새벽에 토해 놓은 흉몽과 같았지요. 할아버지는 관 속에 맥을 같이 넣어 달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죽은 후에도 나쁜 꿈에 시달릴 것을 겁내셨던 모양이에요. 죽은 사람도 꿈을 꾸는 걸까. 어린 내게는 그것이 꽤 이상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물건, 부리던 하인들의 모양까지 흙으로 빚어 무덤 속에 같이 넣었다잖아요? 아내의 조부는 이제 길고 희미한 시간의 회랑 끝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다. 머리맡에 맥을 세워 두고, 어쩌면 그에게 최면을 걸 듯 느릿느릿 낮게 읊조리는 아내의 말소리에 손을 잡혀 그는, 더러는 어슴푸레 떠오르는 시간 속을 자꾸 걸어간다. 그것은 마치 감광제가 고루 발리지 않은 필름과도 같다. 어느 부분은 저 홀로 발광체인 듯 환히 빛나며 뚜렷이 떠오르고 어느 부분은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굳이 잊혀진 것을 되살리고자 안 타까워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은 늙은이에게 주어진 보잘 것없는 특권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 주춤거리고 섰는 이곳은 어디인가. 언젠가 가 보았던 박물관의 전시실 같기도 했다.

그곳은 토우(土偶)\*나 동경(銅鏡) 따위 죽은 사람들의 부장품들만을 진열한 방이었다. 땅속에 묻혀 천년 세월을 산, 이제

는 말끔히 녹을 닦아 낸 ㉠구리거울을 보자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죽은 옛사람인 듯 느껴졌었다. 관람객이 한 명도 없이 텅 빈 전시실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어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어둡고 눅눅한 회랑을 걸어 나오며 그는 잠깐 스쳐 간 괴이한 기분에 대해 변명하였다.

영로를 문었을 때 그는 그가 묻고 돌아선 것이, 미쳐 가는 봄빛을 이기지 못해 성급히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아니라 ㉡한 조각 거울이었다고 생각했었다.

- 오정희, 「동경」

\*연도: 고분의 입구에서 시체를 안치한 방까지 이르는 길.

\*가수: 의식이 반쯤 깨어 있는 상태로 자는 잠.

\*대목: 큰 건축물을 잘 짓는 목수. 혹은 '목수'를 높여 이르는 말.

\*타구: 가래나 침을 빨는 그릇.

\*토우: 흙으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의 상. 종교적·주술적 대상물. 부장품, 완구 따위로 사용하였다.

8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주변 상황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개입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8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아이의 만화경을 놀이터에서 우연히 주웠다.
- ② '그'는 만화경을 찾기 위해 아이와 함께 놀이터를 뒤졌다.
- ③ '그'와 '그'의 아내 모두 반죽을 궁글려서 맥을 만들고 있다.
- ④ '그'는 죽은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그 옆에 동경을 같이 묻었다.
- ⑤ '그'의 아내는 예전에도 '그'에게 조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83. <보기>를 근거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소설의 제목인 '동경'은 구리로 만든 거울을 뜻한다. 이 작품에는 여러 거울이 등장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실물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은 젊음에 대한 인물의 열망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신체적 부조화를 직면하게 만드는 냉혹한 자아 확인의 도구로 기능한다. 장례 의식에 쓰인 유물이나 죽은 인물과 동일시되는 소재로 사용된 경우는 죽음의 의식이 투사된 상징물이나 사별의 고통과 그리움이 투영된 매개체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냉혹한 죽음의 질서를 보여 주는 소재로도 기능한다.

- ① ㉠은 '그'의 '검은 머리'를 비춘다는 점에서 젊음에 대한 인물의 열망을 드러내는 도구로 기능한다.
- ② ㉡은 '검은 머리'와 '무너진 입과 줄아든 인중, 참혹하게 파인 볼'의 대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인물에게 신체적 부조화를 직면하게 만드는 냉혹한 자아 확인의 도구로 기능한다.
- ③ ㉢은 박물관에 전시된 '죽은 사람들의 부장품'이라는 점에서 죽음의 의식이 투사된 상징물로 기능한다.
- ④ ㉣은 '그'에게 '죽은 옛사람인 듯한' 느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죽음의 질서를 거스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기능한다.
- ⑤ ㉤은 '그'에게 죽은 아들 '영로'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사별의 고통과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투영된 매개체로 기능한다.

8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동경」은 주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노년만의 고독한 문제인 노화와 죽음을 다루는 소설로, 죽음으로 향해 가는 현실에 직면한 인물들의 여러 방어적 자세가 나타난다. 거침없고 호기심 많은 아이는 생명감과 역동성이 충만한 존재인데, 노인은 이러한 존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모방하거나 아이의 물건을 탐하는 등의 퇴행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생명에의 동경을 드러낸다. 더불어 흥몽을 없애는 상징물을 만드는 행동을 통해 죽어서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관념을 표출하는데, 이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순환적 의식을 드러내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은 노년의 일상적 삶이 생명의 역동성에서 떨어진 상황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① '그'가 '뭐든지 다 보이는 요술 상자'에 대해 '진정한 호기심'이 아닌 '의미 없는 되물음'을 하는 것은, 노년의 일상이 아이가 지닌 생명의 역동성에서 떨어진 상황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그'가 '아이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만화경을 집어' 드는 것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현실에 직면한 인물이 아이의 물건을 탐하는 퇴행적 모습에 해당하는군.
- ③ '그'가 '뭐든지 볼 수 있다'는 '아이의 말을 흥내 내'는 것은, 노년의 인물이 생명감이 충만한 존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모방하는 모습을 통해 생명에의 동경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아내의 조부'가 '관 속에 맥을 같이 넣어 달라고 유언을 하는 것은, 죽어서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관념을 표출함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순환적 의식을 극복하려는 것이군.
- ⑤ '아내의 조부'가 '길고 회미한 시간의 회랑 끝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것은, 노년의 인물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통해 인간이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군.



[85~8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귀리집은 중산간 마을인 노형리의 주민으로, 군경에 의해 마을이 전소되면서 해변의 서호마을로 강제 이주된다. 귀리집은 좌익 무장대와 군경을 피해 달아나다 행방이 묘연해진 남편의 생사를 궁금해하고, 성담\*을 다 쌓아 통행이 허락되면 읍내에 있는 아들 순원을 만날 생각에 들뜬다.

울력꾼들은 이제 성담을 끼고 도령마루 쪽으로 걸어간다. 어른 키의 두 배 높이는 실히 뒤 직한 성담을 올려다보고, 또 성담 따라 끝 간 데까지 눈길을 보내어, 성이 멀리 도령마루 위로 가물가물 기어오르는 모양을 바라보면서 귀리집은 새삼 놀란다. 한 달 새에 저렇게 많이 일을 했나? 고생도 되게 하긴 했지. 손끝이 닳아 조막손이 되는가 싶었지. 특히 왼손은 흉측하기가 말이 아니다. 한번 찍힌 돌에 걸리는 손톱이 빠지고 중지는 가운데 뼈마디에 훙한 혹이 생겼다. 그러나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역사가 모두 끝난단다. 이제는 설마 울력\* 나오라는 말이 다시는 없겠지.

바람결이 꽤 차다. 밭 경계선마다 둘러쳐져 바람막이가 되던 밭담\*이 죄다 없어졌으니 바람은 아무 거칠 것 없이 마구 휩휩 불어제친다. 귀리집은 바람이 불어오는 왼편 귀뺨을 머릿수건으로 잘 단도리한다. 등에 진 마른 솔가지 짐이 바람에 부스럭 거린다.

울력꾼들은 여편네들과 열두서너 살짜리 어린것들이 대부분이고 어른 남자라곤 별초한 봉분처럼 머리가 민둥한 중늬은이들이고 젊은 축들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개중에는 파뿌리 머리칼을 정수리에 웅쳐맨\* 상투짜리 일흔 넘어 보이는 노인네도 드문드문 눈에 띈다. 불안간 쌀쌀해진 날씨에 뻑뻑 낡은 머리뺨이 시렸던지났은 중절모나 도리우찌, 개가죽 감투, 또 하도 헐어서 죽은 까마귀 날갯죽지같이 몰골이 훙한 남바위를 쓰고 나온 노인들도 더러 있는데, 이들은 묻지 않아도 서호 본고장 사람들이 틀림없으리라. 불탄 우리 노형마을에서 소까이\*되어 온 사람들이 어느 경황에 저런 방한모를 챙겨 가져올까 말이다.

오도롱만 남겨 놓고 ㉠다섯 부락 모두가 한날한시에 불타던 노형리 소까이. 저번 날 읍내에서 선무 공작대\*가 성담 쌓는 데까지 찾아 올라와서 한 시간 동안 말자랑뿐인 시국 연설을 늘어놓다 갔는데, 그때 노형 사람들이 제일로 원통해하는 소까이 문제를 놓고 반죽 좋게 너스레 떠는 것을 귀리집은 들은 적이 있다. 산 폭도가 양민 가운데 숨어 살기를 머릿니가 걸바시\* 현머리에 서캐\* 쓸듯 하니 어느 하세월에 챙빚으로 굶은니며 가랑니며, 서캐를 훔쳐 내 잡을 것이냐. 아예 석유 기름 붓고 머리칼을 홀랑 태워 버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거였다. 그래서 마을을 불태운단다. 생사람 대가리에 석유를 부어 불태우다니, 머릿니 잡는다고 생사람 잡는 게 소까이란 말인가. 집과 양식이 불타고, 소개민 중에는 폭도 가족이라고 지목된 여편네들이 여럿 죽고 심지어는 할망, 할오방\*마저 더러 죽었다.

(중략)

귀리집은 바람 불어오는 바다 쪽으로 힐끗 눈을 준다. 방금

가로질러 건너온 일주 도로에는 모래바람이 뽕양게 일고 있고, 그 너머 해변가의 도두봉 양옆으로 뽕그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바닷물마루(수평선)는 높하늬바람에 부대껴 험상궂게 울퉁불퉁하고 흰 거품을 일으키는 물이랑들이 수없이 바다 들판을 뒹굴고 있다. 깔축없이 갈치 떼가 허영게 뜬 격이로고, 참말 저 것들이 몽땅 갈치 떼라면 얼마나 좋을 거냐. 하룻밤 배 띄워 혼전만전 잡아다가, 빈 몸으로 이 해변에 소개해 와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우리 노형마을 사람들 굶은 배를 한번 양껏 채워나 봤으면……노란 햇조밥에 군 갈치. 구울 때 들러붙은 검정 조 짬뽕 채도 털지 않고 먹는 그 살진 맛이라니. 조바심 철이면 해변가 도두리, 서호 아지망\*들이 대구덕에 갈치를 지고 올라와 팔았었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당장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오목가슴이 쓰러 왔다. 점심을 안 먹은 귀리집은 오늘날만은 아들놈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할 요량으로 조반을 굶고 있는 터이다. 몇 발짝 못 걸어가 이번엔 얼핏 어지럼증이 일어나 희뜩희뜩 헛것이 보인다. 다리 맥살이 빠져 주저앉고 싶은 것을 겨우 참고 계속 걸어간다.

하지만 저 바다에는 주낙배를 띄울 수 없다. 온 섬 포구의 배란 배는, 심지어 자리태우(뗏목 배)마저 모두 물에 끌어들려져 배 밑굽이 이끼와 잡초에 싸인 채 몽창몽창 썩어 가고 있다. 고기 잡던 보제기 남정네들이 폭도로 의심받아 산으로 들로 굴을 찾아 도망쳐 버려서 배 부릴 사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도 해변 부락들은 중산간보다는 덜 의심받아서 남정네들이 더러 남아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네들도 배를 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물, 닳, 샷대, 돛 등 마을의 모든 선구가 민보단 단장 집에 압수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이란단다. 폭도들의 해상 탈출을 막기 위해 입어(入漁) 금지령이 떨어져 있는 터라, 물 가까운 얕은 물에서 하는 해녀들의 물질마저 허락되지 않는다. 해녀들의 궁둥짝같이 넓적등글한 태와도, 그물망시리도 좀먹어 구멍 뚫뚫한 추녀 기둥에 걸린 채 하늬바람에 덜그럭덜그럭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계엄령이 떨어져 있는 저 제주 바다에는 배가 뜨지 않는다. 항시 감시 군함 두엇이 앞바다를 오락가락할 뿐, 쪽박 하나 뜨지 않는다. 귀리집은 다시 바다로 눈길을 돌린다. 그러나 흐린 바다 물빛에 어울려 젓빛 군함들은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잠시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하나는 한림 쪽을 향해 막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중이고 다른 하나는 멀리 수평선까지 흘러가 파도에 가려졌다 보였다 하고 있다. 이렇게 사방이 바다로 꽉 막혔으니, 산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독 안에 든 쥐일 수밖에. 바다를 막아 놓고 군경 합동 토벌군은 섬을 뺨 둘러 해변에서부터 쪽 훔쳐 올라간단다. 폭도들이 해변을 습격해 올 때 숨을 만한 해변가 일주 도로 근처 밭담이란 밭담은 죄다 허물고, 솔수평, 수리대(箭竹)밭도 태우고, 폭도들이 죽창 만들지 모른다고 왕대밭도 태우고, 핏갯김에 마을 정자나무, 늙은 팽나무 신목(神木)도 잘라 팔아먹고, 당도하는 중산간 부락마다 모조리 불태워 그 불기에 몸을 녹이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점점 좁혀 간다. 이제 뛰어봐야 그 풀밭이 그 풀밭인 메뚜기 풀이다. 이젠 ㉡물이사냥이다. 옛날 육지서 들어온 제주 목사(牧使)들이 농사일에 바쁜 섬 백성을 온통 물이꾼으로 내몰던

노루 사냥이 그랬듯이 이 잡듯이 살살이 훑어 올라간단다. 물 이사냥엔 노루 말고도 지다리(오소리), 산토끼같이 작고 변변치 못한 것들도 몰이꾼 몽둥이에 맞아 죽게 마련이다. 산 폭도 사냥이야 백번 옳지만, 혹시 멀쩡한 양민은 어찌 되나? **순원이 아방\***처럼 다만 남자로 태어난 것이 유죄라 산에 오르지도 해변에 내리지도 못해 중산간의 **동굴** 속에 숨어 썩은 말고기를 먹고 산다는 **남정네**들은 어찌 되나? 불구의 몸이라 미처 피난 못 가고 불탄 집터에 타다 남은 조 짚가리 속에 숨어사는 할망, 할으방 들은 어찌 되나?

- 현기영, 「도령마루의 까마귀」

\*성담: 성(城) 주위에 쌓은 돌담.

\*올력: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또는 그런 힘.

\*밭담: 제주도에서, 밭의 가장자리를 돌로 쌓은 둑. 밭의 경계도 되고 바람으로부터 곡식을 보호하기도 한다.

\*옹취맨: '동여맨(끈이나 새끼, 실 따위로 두르거나 감거나 하여 묶은.)'의 방언.

\*소까이: 강제 이주를 뜻하는 일본어. 화재나 공습 등에 대비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하는 '소개'를 뜻함.

\*선무 공작대: 전이나 사변으로 군대가 출병하여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였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군에 협력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적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전·원조 따위의 활동을 하는 단체.

\*걸바시: '거지'의 제주 방언.

\*서캐: 이의 알.

\*할망, 할으방: '할머니', '할아버지'의 제주 방언.

\*아지망: '아주머니'의 제주 방언.

\*아방: '아버지'의 제주 방언.

8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현재형 진술을 활용해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③ 내화와 외화의 교차를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해 관찰하고 느낀 바를 서술하고 있다.

86. <보기>는 윗글의 공간적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산	중산간 부락	해변 부락	바다
㉠	㉡	㉢	㉣

- ① ㉠은 군경 합동 토벌군과 대치하는 세력이 은신하는 공간으로 저항의 장소이다.
- ② 폭도를 소탕하기 위한 군경 합동 토벌군의 작전의 일환으로 ㉡에 살던 주민들이 ㉢로 이주하게 되었다.
- ③ ㉡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는 올력의 부담과 토벌군의 감시를 견뎌야 하는 억압적인 공간이다.
- ④ ㉠에 은신한 세력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토벌군의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은 ㉢로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에 은신한 세력은 ㉢로 이동하기 위해 ㉡를 전소하였고, 군경 합동 토벌군은 ㉢를 막은 뒤 훑어 올라가면서 ㉠을 포위하고 있다.

8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을 시행한 목적은 상이하다.
- ② ㉠으로 초래된 갈등이 ㉡으로 인해 해소된다.
- ③ ㉠은 ㉡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실행된 것이다.
- ④ ㉠의 시행 주체와 ㉡의 시행 주체는 서로 대립 중이다.
- ⑤ ㉠의 시도가 좌절되자 그 대안으로 ㉡을 실행한 것이다.

8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제주 4·3 사건 당시 무고한 주민들이 다수 학살당한 도령마루 동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은 폭도라 불리는 좌익 무장대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군경이 내린 계엄령하에서 좌익 무장대와 주민들의 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성담이 건설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군경의 강압에 의해 다급하게 이루어진 주민 강제 이주와 마을의 전소, 축성에 동원된 강제 노역의 고통, 가족 해체, 어업을 포함한 생업 활동에 대한 제한, 열악한 형편과 굶주림 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무고한 피해자로 전락해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고발한다.

- ① '귀리집'이 '조막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일하는 모습을 통해, 축성에 강제 동원된 주민들이 겪는 노역의 고통을 알 수 있다.
- ② '노형마을에서 소까이되어 온 사람들'이 '방한모'를 챙겨 오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경의 강압에 의해 이주가 다급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③ '귀리집'이 '물이랑들'을 보고 '갈치 떼'를 연상하는 것을 통해, 열악한 형편에 처한 이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그물, 닳, 샷대, 돛 등 마을의 모든 선구가 '압수'되었다는 것을 통해, 좌익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한 군경의 계엄령이 주민들의 어업 활동을 제한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순원이 아방'을 비롯한 '남정네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통해, 군경의 탄압을 피해 입산한 좌익 무장대가 굶주림의 고통과 가족 해체의 비극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89~9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이재신은 해방 후 집을 장만해 세를 놓지만, 실제로는 배급 탈 돈조차 없이 가난하다. 그러던 중 아내 양춘자가 이웃인 여 반장과 함께 밀주를 만들어 팔고자 하고, 이재신도 이를 돕는다.

야간 순시 중의 순경이 총을 메고 서 있었다.

“택에선 도대체 뭘 하시는 거요?”

“허긴 뭘 합니까아?”

“뭘 합니까아라? 난 코두 아무것두 없는 줄 아시우? 하여튼 부인과는 얘기할 수 없으니 주인 좀 봅시다.”

이때 이재신이 안방 문을 열고 마루에 나타났다.

“아 이거 박 선생이 아니시우?”

이재신이 먼저 말을 걸었다.

“아— 이 선생이십니까?”

“글쎄 아까부터 목소리가 어쩐지 박 선생 같다구 생각은 하면서두…… 어서 이리루 올라오시우.”

“아—니 좀 바빠서, 그런데 이 선생 이거 안 되겠는걸요. 선생께서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 박 선생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야 날마다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구 동분서주하지 않소? 첫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낸답니다. 오늘에야 알구 보니 이 판국이구려.”

침착하기 이를 데 없고 말도 조리가 있었다. 자기는 전연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서 철없는 계집들이 자기마저 감쪽같이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니 친한 사이라 널리 양해하여 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히 단속하겠노라고 단언하고 나서 한잔 같이 나누자고 박 순경의 손목을 잡았다.

순경은 듣기만 하다가 빈정댔다.

“집안에서 생긴 일을 주인 되시는 이가 몰랐다? 이거 고금에 드문 일이 벌어졌군. 하여튼 밤도 깊었으니, 내일 파출소에 좀 와 주실까요?”

순경은 발을 돌렸다.

파랑 대문까지 배웅 나왔던 이재신 부처는 올라가 마루에 주저 앉았다. 깊은 밤이라 구경꾼 하나 없었지만 이렇게 떠들썩해놓고 보니 감찰 것도 없고, 부끄러움도 사라져 버렸다.

“배라먹을 년, 술은 뭐 썩어 자빠진 술, 난 모른다 이젠.”

양춘자는 없는 반장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 한번 몸쓸 년의 유혹에 걸린 것이요, 모두가 여 반장의 잘못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년만 없으면 밀주인지 뭘지 생각이나 해? 흥, 참 별꼴 다 보겠네.”

포르르 달려가서 여 반장네 담을 두드렸다.

순경이 지르는 호통에 여 반장도 잠이 깨어 큰일 난 줄은 알았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불 밑에서 떨고만 있다가 순경이 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는 길이었다.

양춘자의 안방에서는 삼자 회의가 열렸다. 왼쪽 다리를 깊숙이 바른 무릎에 올려놓고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우는 이재신은

중시 말이 없고 두 여인만은 처음부터 옥신각신이였다.

서로 자기가 잘했고 따라서 책임은 저편이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침묵을 깨뜨리고 이재신이 입을 열었다.

“염려들 마시우. 아까 그 박 순경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 한 잔 맥여서 어루만져 놓으면 될 거요. 그래두 안 되면 쌀이나 한 가마 갖다 안겨 놓지. 쥐서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새 맥여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 줄 아시우?”

(중략)

들어서자 이재신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간밤의 실례를 사과하고 금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터이니 양해하여 달라고 청을 드렸다.

한참 동안 묵묵히 앉아 있던 박 순경이 입을 열었다.

“피차에 생활은 다 궁하지 않습니까? 궁하기는 제가 이 선생보다 더할 겁니다. 그러니 궁하다는 것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 거든요. 선생께서도 생각다 못해 부득이 해서 하셨겠지요. 허지만 법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지요.”

박 순경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몸이 몹시 불편한 듯하였다. 다른 소리는 들으나 마나 한 것이고 하여튼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확실히 용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몇 번이나 몰래 만지면서 술이나 한잔 나누러 나가자고 말을 꺼내려다가 삼켜 버렸다. 몸도 불편하려니와 그의 생김새를 가만 보아하니 자칫하다가는 창피를 당할 것도 같았다. 공손히 치사하고 일어서 나왔다. 막상 나와 보니 돈 한 푼 안들이고 큰일이 해결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다.

— 오늘 재수는 상지상(上之上)이로다.

한길에 나온 재신은 몇 걸음 옮겨 놓다가 다시 돌이켜 생각했다.

— 이번 일만이라면 그냥 두어도 무방하겠지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른다. 지금 살아 두지 않으면 다음부터 일이 있을 때에 부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왕 갖고 온 돈이니 버리는 셈 치고 술이나 좀 사다 안겨 놓자.

상점에 가서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일천오백 원으로 포도주 세 병을 사서 깨끗한 종이에 싸 가지고 다시 박 순경네 대문을 들어섰다. 부인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박 순경이 혼자 앉아 약을 마시고 있었다.

대문간으로 들어간 이재신은 마당에서 굶신했다.

“약소합니다마는 한잔 맛 보시우. 포도주는 몸에두 괜찮습니다. 이번엔 뭐라구 감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 술은 못합니다.”

“이건 포도주네 맛도 좋고 어린애라두 마시는 겁니다.”

“저는 주(酒) 자 붙은 것은 뭉든지 못합니다.”

이재신은 무작정 술병을 방 안에 들여놓고 대문을 막 나가려고 하였다. 순경이 큰 소리로 불렀다.

“이 선생,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들어오시오.”

이재신은 개화장을 구석에 세워 놓고 방에 들어가 앉았다.

“이 선생, 사고파는 물건은 따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신은 알 듯 모를 듯한 소리였다.

“저도 한번 장사치로 나서 볼까 하는데 호수가 틀리지는 않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재신은 더욱 모를 소리였다.

“법이라는 밀주를 팔면 어떻게 했는데…….”

이재신은 대답을 못 했다. 이죽거리는 품이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이 이재신을 어떻게 보구 하는 잡소리냐?

— 못한 녀석, 남은 없어 못 먹는데 쌀 한 톨이라도 들어오는 건 받아 넣는 것이 장땡이지, 똥별짜리가 잘난 체 깨끗한 체 해 보았자 누가 알아나 주나? 제까짓 것이 어찌구? 작년 가을에 김 경감두 쌀 한 말 갖다줬더니 고맙다구 고스란히 받지 않았나……흥, 싫으면 그만둬라.

- 김성한, 「무명료」

(나)

**[앞부분 줄거리]** 김진만과 이영복은 브로커에게 속아 양식장에 공동 투자했으나 적조 때문에 망해 생계를 위협받는다. 어느 날, 적조를 구경하러 온 관광선이 암초에 부딪혀 인근 바다에 침몰한다.

**브로커:** 사실은, 내가 **최후통첩**하러 왔어요.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젠 **④양식장**을 팔든가 말든가, 두 분이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김진만:** 지금 당장……?

**[A] 브로커:** 네, 바로 지금요!

**김진만:** 염병할!

**브로커:** 자, 어떻게 할 겁니까?

**김진만:** 우린 조금할 것 없어. 당신이 우리 양식장을 사고 싶어 몸살이 난 모양이군.

**브로커:** 난 다 알게 됐어요. 선생이 뭇 때문에 배짱을 부리는지 알게 됐거든요. **①침몰한 배의 실종자 시체를 찾아 주변 유가족들이 사례비로 큰돈을 준다니까, 혹시나 그걸 찾아볼 생각이죠?**

**김진만:** 염병할, 난 그런 치사한 생각 없어!

**브로커:** 그럼 내 자전거를 뺏어 타고 뺨질나게 읍내를 드나든 건 뭘니까?

**김진만:** 증거를 대라구, 증거를!

**브로커:** 며칠 전엔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남편 시체를 찾아 주변 삼천만 원 준다는 여자들요. 그래도

**[B] 잡아땔 거예요?**

**김진만:** 이거 염병 았다가 꼬꾸라지겠군!

**브로커:** 그 심정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양식장이 망했으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 방법을 찾고 싶겠죠. 하지만 잘 들어요. 두 분을 위해서 충고하는 건데, 구질구질하게 시체 따위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김진만:** 누가 시체한테 희망을 건댔어?

**브로커:** **②시체한테 희망 건 사람들이 많아요.** 실종자 가족

들 중에는 그런 자들이 있지요.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기뻐해야 할텐데, 도리어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인간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아니 벌레만도 못한 존재지요. 심지어 **죽은 시체를 놓고 다투는 인간**도 있어요. 보상금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면서, 서로 아귀처럼 싸우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족 시체도 아닌, 남의 시체로 돈을 벌겠다니……도대체 아귀만도 못한 그런 존재는 무어라고 해야죠?

**김진만:** 뭐라고 할지는…… 염병할, 하루만 여유를 줘! 하루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할 테니까!

**[C] 브로커:** 그거, 확실해요?

**김진만:** 확실하지!

**브로커:** (이영복을 바라보며) 선생도 확실히 대답하세요.

**이영복:** (침묵한다.)

**김진만:** **③저 친구가 대답 안 하는 건 가격 때문이야! 십분지 일은 말도 안 돼! 우리 조건은 최소한 원금의 십분지 사라고!**

**브로커:** 십분지 일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못 줘요! (의자에서 일어선다.) 계약서는 놓고 갑니다. 난 내일 저녁 다시 오죠. 오늘 당장 결판을 내려고 했는데, 하루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일 올 테니까 두 분 동업자끼리 사이좋게 의논하여 결정해주세요.

(중략)

**브로커:** 양식장 계약서는 왜 찢어져 있죠?

**이영복:** 그가 떠나면서 나에게 팔았어요, 자기 몫을요. 공동 소유였던 양식장을 이젠 나 혼자 갖게 됐습니다.

**브로커:** 선생이 혼자……?

**이영복:** 네.

**브로커:** 그걸 전부 가져서 무얼 하려구요?

**이영복:** (침묵)

**브로커:** 아까 보여 준, 그 물고기 남자인가 뭔가를 양식할 건가요?

**이영복:** (침묵)

**브로커:** 적조 때문에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실컷 고생만 하고, 잔뜩 손해만 보고…… 선생이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이영복:** **⑤그래서 나 자신이 갖기로 한 겁니다.**

**브로커:** 무슨 말씀인지……?

**이영복:** (침묵)

**[D] 브로커:** 그러니까 뭘니까? 혼자 다 갖겠다는 건…… 남에게 팔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까?

**이영복:** 네.

**브로커:** 왜요?

**이영복:** 내가 팔면…… 산 사람은 나처럼 실컷 고생만 하고, 잔뜩 손해만 볼 겁니다. 그걸 알면서 **양식장을 팔 수는 없죠.**

**브로커:** 별 희한한 생각을 하셨군요. 도대체 선생이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생을 잘 아는 사람이 양식장을 살 리는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게 될 텐데요?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자, 나를 보십시오! 선생과 다른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브로커인 내가

있습니다. 선생은 일단 양식장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그럼 나는 적조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살 사람을 찾아 [E] 내 파는 겁니다. 그 경우, 선생은 누가 샀는지 모르며, 산 사람 역시 누가 팔았는지 모릅니다. 실컷 고생을 하고 잔뜩 손해를 봐도, 중간에 있는 나를 욕할 뿐 모르는 사람을 욕하진 않죠. 그러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선생이 들을 욕을 내가 중간에서 대신 듣고, 선생이 받을 원망을 내가 중간에서 대신 받습니다. 선생은 아무 걱정 마세요. 그저 훌가분한 기분으로 나에게 양식장을 팔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영복:** 하지만 이젠 비켜 주시지요.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브로커:** 날…… 비키라구요?

**이영복:** 네.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ですよ.

**브로커:** 이런…… 선생은 뭔가 지나치게 과민해지셨군요.

**이영복:** 난 정상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르는 사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야 당연하고, 그 모르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당연하죠.

- 이강백, 「물고기 남자」

89.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② 제삼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발생한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90.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 순경은 집에서 아내가 밀주를 만드는 줄 몰랐다는 이재신의 발언을 믿지 않고 있다.
- ② 박 순경은 이재신이 건넨 포도주가 이재신이 만든 밀주라고 생각하여 이를 받지 않고 있다.
- ③ 이재신은 뇌물을 통해 박 순경에게 적발된 일을 무마할 수 있다는 말로 아내를 안심시키고 있다.
- ④ 박 순경은 상대의 궁핍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정해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히고 있다.
- ⑤ 이재신은 이번 일을 무마할 목적이 아니라 추후에 도움을 요청할 목적으로 뇌물을 주기로 결심하고 있다.

91.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브로커는 김진만이 실종자 시체를 찾아 보상금을 얻으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종자들의 생활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③ ㉢: 김진만과 이영복이 브로커에게 양식장을 팔더라도 양식장을 구입할 때의 원금 전액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④ ㉣: 이영복이 양식장을 타인에게 되팔려는 브로커의 전략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이영복이 낫신 타인의 고통이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92. (나)를 무대에서 상연한다고 했을 때, [A]~[E]에 대한 연출가의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브로커'와 '김진만'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므로, 강경한 태도가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② [B]: '브로커'가 '김진만'의 해명을 듣고 그에 대한 오해를 푸는 상황이므로, 겸연쩍은 심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③ [C]: '김진만'이 상대방의 발언에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므로, 다급한 심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④ [D]: '브로커'가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의아해하는 심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⑤ [E]: '브로커'가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내세워 회유하는 상황이므로, 확신에 찬 태도가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9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는 특정 인물의 자기반성적 태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 ② ㉠과 달리, ㉡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에서 개인의 좌절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 ③ ㉠과 ㉡는 모두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는 데 기여한다.
- ④ ㉠과 ㉡는 모두 특정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되도록 만들고, ㉡는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도록 만든다.

9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사회 전반에 만연한 탐욕과 이기심을 보여 주며, 인물 간 갈등 구도를 통해 속악함과 선량함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불법과 사기를 자행해 사익을 챙기거나 남 탓만 하는 몰염치한 인물, 인간의 생명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치환하거나 돈으로 타인을 쉽게 매수할 수 있다고 믿는 물질만능주의적 인물, 부패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인물 외에도, 묵묵히 자신의 공간에서 정의를 지키거나 타인을 위해 자신에게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도 나타난다. 이를 통해 속악한 인물에 대한 독자나 관객의 비판 의식을 유도하면서 그들이 활개를 치는 환경, 즉 부정부패와 비양심이 만연한 타락한 세태를 고발하고 있다.

- ① (가)에서 '책임은 저편이 져야 한다'는 '두 여인'을 통해, 남 탓만 하는 몰염치한 인물에 대한 독자의 비판 의식을 유도한다.
- ② (가)에서 김 경감이 이재신이 건넨 '쌀 한 말'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부패한 공권력의 모습을 고발한다.
- ③ (나)의 이영복이 브로커에게 '양식장을 팔 수는 없'다고 한 것을 통해, 속악한 인물과 대비되어 타인을 위해 자신에게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려는 선량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가)에서 박 순경이 '밀주'를 처리하는 과정과 (나)에서 브로커가 '최후통첩'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불법을 자행하는 인물이 공권력과 결탁해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⑤ (가)에서 '멕여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장담과 (나)에서 '시체를 놓고 다투는 인간'에 대한 언급을 통해, 물질만능주의적 인물이 활개를 치는 타락한 세태를 드러낸다.

[95~9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술 먹는 이외에는 별로 불만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세상 물정에 등한하고 주변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판에 미국 유학한 덕, 영어 잘하는 덕을 남보다 더 보아야 할 터인데, 겨우 대학에 시간 강사로 몇 시간 맡은 것밖에는 밤낮 죽치고 들어앉아서 세상 한탄이나 하고, 누구는 어떠니 싫고, 누구는 아무기로서니 그럴 줄은 몰랐다고 욕설이나 하는 것이, 인체는 귀에 못이 박히다시피 되어 싫었다. 누구보다 먼저 덕을 보아야 하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아무 까닭 없이 미국 출신이란 트집으로 두 번이나 유치장 신세를 지고, 한 번은 미결감, 한 번은 감시소라든가 하는 데에 갇혀 있다가 해방 직전에 풀려나와서는 울화에 떠서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마침 소개(疏開)\*한다는 바람에 몇 칸 안 되는 집이나 팔아 가지고 외가의 연줄을 더듬어 강원도 철원으로 갔던 것이, 결국은 오늘날 파산의 장본이 된 것이다. 설마 삼팔선의 토치카\*가 서고 철원에서 엎드려지면 코 닿을 서울이 여행권조차 얻을 수 없는 천리만리 외국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였지마는, 세 식구가 빈 몸뚱이로 간신히 서울에를 기어 들어섰더라도 남과 같이 주변성 있게 서둘렀으면 아무러니

①집 한 채 못 얻어걸릴 것이 아니었다고 부인은 분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어떻게 들어서 그런지, 난 벼슬하려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역하려 영어를 배웠던가 싶으나 하며 꼬장꼬장한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 전쟁 중에 그 고생을 하고 파산까지 하고서 이 지경으로 겨울은 닥쳐오는데 거리에 나왔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던가를 생각하면, 이 판에 무슨 큰 수는 못 나도 그 보충은 될 만큼 약게 놀아야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불평이 나날이 쌓여 가는 것이다.

“그래 벼슬을 하고 통역을 하는 것은 건국에 이바지하는 도리가 아니오?”  
 이렇게 권고를 해도,  
 “글쎄, 난 싫다는데 어찌라는 거요?”  
 [A] 하고 눈을 곤두세우며 역정을 내는 것이었다.  
 “그럼 처자식은 거리로 나왔으라는 거요?”  
 하고 애원을 하면,  
 “흥, 그야 제 팔자대로 살겠지!”  
 하고 코대답이다. 스물한 살 먹은 맏아들 놈을 병으로 내놓고 나서 소개를 한 뒤, 해방이 된 지도 일 년이 넘도록 중무소 식인 것을 부부간에라도 아무쪼록 입 밖에 내지 않고 지내자니 더욱이 속이 썩어서 술만 마시려 들고 세상일이 귀찮아하는 듯 싫다는 동정도 가나 “제 팔자대로 살겠지!” 하는 그 말은 이런 데서 우러나오는 간국같이 쓰고 짠 소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색시가, 이 체에 들려고 몸이 달아 그려는게로군? 그래 그 색시가 권\*마누라의 둘째 딸이란 말야?”  
 영수는 잠자코 술만 마시다가 한마디한다. 주인마누라 말이, 자기 둘째 딸이 집에 몰려서 이 뒤채로 들어오니까 어서 내주어야 하겠다는 말을 늘 들었기에 하는 말이다.  
 “글쎄요, 난 그 흑구자\*가 안집 색시의 시늬구 둘째 딸이란 것은 따루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체에 와서 들 둘째 딸이란

것이 그것이라면 큰딸과는 애비가 다른 것이지!”

영수 맥은 이런 소리를 한다. 이 집은 원체 일본 사람의 여관이거나 마찌아이[待合]\* 같은 것을 경영하던 집인 듯싶은 크낙한 집인데, 미군이 쓴다고 해서 부랴부랴 내놓게 한 것인데, 급기야에 와서 드는 사람을 보니 기생퇴물 같은 똑딱 양장미인과 그 모친이란 오십쯤 된 중년 부인하고 금옥이라는 열댓 살 된 계집애년의 세 식구뿐이요, 안라는 주인의 동생이란 말을 무슨 말 끝에 들은 법한데 하여간 여기 와서 자지는 않는다.

“아, 파닥지를 보면 모르나! 아무러면 그 귀신 같은 것이 양장미인의 동생일 리는 없으니, 남편의 누인지, 시누지! 검둥이의 첩인지? 허허허.”

영수도 안채의 양장미인을 힐끗 원공으로 한번 보고, 허어, 상당한 미인이라고 감탄도 하였지마는 주인이 어떤 작자인지 보지는 못하였어도 어느 놈의 소실이거니 하는 짐작은 든 것이다.

“그건 어쨌든 말눈치를 들으면 아마 미군들의 놀이터로 양요릿집이거나 호텔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청을 해서 이 집을 맡아 냈나 봄디다.”

[중략 부분 줄거리] 영수 아내는 양장미인이 영어 편지를 들고 오자 번역을 거절하는 남편 대신에 딸 보배에게 번역을 시킨다. 그 과정에서 양장미인이 조만간 가게를 열어 영업을 시작할 것임을 알게 된다. 양장미인은 보배를 찾아와 영어가 쓰인 과자갑을 선물로 준다.

“그것도 영어 덕이라우. 우리는 영어 덕두 고작해야 그런 것밖에 더 걸린답디까!”

하며 또 영어 덕을 쳐들며 코웃음을 친다.  
 “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영감은 눈살이 찌푸려졌다.  
 “재가 또 ㉠편지를 번역해 주었다우. 권 딸이 제게 온 영어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읽어 달래서 번역을 해 주었다니 그 인사루 지금 손수 가지구 나왔구면…….”  
 “흠…… 무슨 편진데?”  
 영감의 낫빛은 좀 더 흐려졌다.  
 “정말 무슨 구락분지 요릿집인지 꾸미나 보군요. 조금 전에 서양 사람한테서, 훌륭한 양가구(洋家具)를 한 토라크 실어 오구 그걸 받으라는 편진데, 어떤 놈팽인지 내일은 제집으루와 달라는 그런 편진가 보던데…….”  
 “흠…….”

세 번째 ‘흠’에는 영감의 입귀가 뒤틀리며 눈에 모가 났다. 마나님은 좀 점직한\* 생각이 들어서 영감을 달래듯이,  
 “저두 그런 편지를 읽어 달래 놓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든지, 입을 막느라고 그런지, 이때껏 얼씬두 안 하던 이쁜 아씨가 손수 그걸 들고나와서 살살대며 보배더러 놀러 들어오라 하구 친하자는 눈치군요.”

하며 마나님도 그러는 동안에는 집 내놓으란 성화가 식어질까 하는 생각에 웃음이 떠오른다.

“그까짓 것들하구 친해서는 무얼 해…….”  
 영수는 침이나 탁 뱉듯이 한마디 내던진다.

“…… 그 애하구 상종을 왜 하게 하드란 말요. 자라는 계집애 년에게 그따위 편지를 읽어 주라는 마누라가 딱하지!”

영수는 역정을 와락 낸다.

“그럼 어찌우? 모르면 하는 수 없지만 뻔히 아는 것을 모른다나. 이런 처지가 아니라두 그만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데, 어떻게 차차 그렇게 해서 매일 같은 그 성화나 면하게 되면 좋지 않은가…….”

마나님은 무심코 한숨이 나온다.

“이런 처지란 어떤 처지란 말요? 딸자식을 시켜 **그따위 연놈**의 그런 더러운 편지 쪽이나 번역을 시켜 가며 **사탕 알갱이**나 얻어먹고 앉았어야 할 처지란 말야?”

주기가 있는 벌건 얼굴이 퍼레지니까 흠뻑같이 되며 눈을 까뒤집고 대든다.

“그건 누구 탓이오? 입찬소리 그만하구 그런 처지가 안 되게 만들어 놓구려.”

마나님도 맞서며 벌떡 일어나서 댕돌 위에 피해 섰다.

“무어 어찌? 이게 무언지나 알구 이야기요? ……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나 알구서 말을 해요!”

영수가 ㉠과자갑을 들어 내어 밀며 당조짐\*을 한다.

“…… 그래 이걸 딸자식에게 먹여야 웅단 말야? 보배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앉았으란 말야?”

하는 소리와 함께 휘 하더니 과자갑이 땅에 털썩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 염상섭, 「양과자갑」

\*소개: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

\*토치카: 콘크리트, 흙주머니 따위로 단단하게 쌓은 사격 진지.

\*권: '주인'의 준말.

\*흑구자: 흑귀자. 살결이 몹시 검은 사람.

\*마찌아이: 대합실.

\*점직한: 부끄럽고 미안한 느낌이 있는.

\*당조짐: 정신을 차리도록 단단히 단속하고 조임.

9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수는 현재 대학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다.
- ② 영수는 유치장에서 나온 뒤 집을 팔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 ③ 영수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이력으로 인해 전쟁 중에 고초를 겪었다.
- ④ 영수네는 주인집의 둘째 딸이 뒤채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 ⑤ 영수네 가족이 강원도 철원으로 이주한 뒤에, 영수는 만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9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대한 특정 인물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 ② ㉠과 ㉢은 특정 인물의 결핍감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 ③ ㉡과 ㉢은 인물 간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④ ㉢은 ㉠과 ㉡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받게 된 대가이다.
- ⑤ ㉠, ㉡, ㉢은 모두 동일 인물이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싶어 하던 대상이다.

97. [A]와 [B]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에서 통역에 대한 영수와 영수 아내의 태도 대비가 표면화되고 있다.
- ② [A]에서 드러난 영수와 영수 아내의 입장 차이가 [B]에서 좁혀지고 있다.
- ③ [A]에서 영수는 가족보다 나라를 우선시하였으나 [B]에서는 나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가족의 처지를 명분으로 영수 아내가 남편의 태도 변화를 설득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자식을 향한 영수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9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해방 이후 남한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외국 문물이 유입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영어였다. 당시에 영어 실력을 갖춘 사람은 미국인과의 소통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사회의 실세가 되거나 물질적 보상을 얻기도 하고 타인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데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영리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남한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들과 거래하는 내국인에게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 「양과자갑」에 등장하는 '영수'는 후자에 속하는 지식인이다. 이 작품은 '영수'를 통해 해방 이후 미군에 기생하여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득세를 비판하고 있다.

- ① '영수'가 '내가 통역하려 영어를 배웠던가 싶으나' 하는 '꼬장 꼬장한 소리'를 하는 것은, 통역이 사회의 실세가 될 기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② '크낙한 집'을 '미군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안채의 양장미인'은, 미군에 기생하여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려는 기회주의자에 해당한다.
- ③ '아내'가 '집 내놓으란 성화'를 면하기 위해 '보배'에게 번역을 시킨 것은, 영어 실력을 활용해 주인집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데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 ④ '영수'가 '쥘 딸'과 '서양 사람'을 '그따위 연놈'이라고 칭한 것은, 남한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영리를 위해 외국인과 거래하는 내국인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⑤ '보배'가 '쥘 딸'에게 받은 '사탕 알갱이'는, 영어 실력을 발휘해 외국인과의 소통을 도와준 개인이 얻은 물질적 보상에 해당한다.



[99~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습성 늑막염을 진단받고 한 병원에 입원한다.

㉠내가 정말로 아프기 시작한 것은 늙은 간호원이 병실 앞에 내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걸어 준 후, 수의 같은 환자복을 주었을 때였다. 누가 입던 환자복이었는지 몰라도 체구에 맞지 않는 환자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는 꼬락서니는 평소에 생각하던 자기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에 충분하였으며, 내 얼굴엔 완전히 병색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의 부축 없이는 변소에도 가지 않았고, 의사만 보면 공연히 매어달리고픈 충동을 받곤 했다.

입원한 다음 날, 한 폐의 **의사들**이 병실로 몰려와, 겁에 질려 있는 나를 **전범\* 다루듯** 사납게 벽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주삿바늘로 옆구리를 찔러 굉장한 양의 노르끼한 액체를 빼내었고, 나는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유난히 하얀 병실 벽을 마주 바라보며 그들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약간 울고 있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나치고 사라져 가는 그 집행인들의 흰 가운데서 병실 벽처럼 차디찬 체온을 절감했다.

나는 이렇게 입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어느 틈엔가 **아침이 면체온계를 입에** 물고 사탕을 깨물세라 조심스럽게 녹이는 유아처럼 체온을 재는 **모범 환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입원한 지 일주일쯤 후부터는 어느 정도 병이 차도를 보이기 시작해서 열도 정상으로 내려갔고, 더욱이 내 병은 가벼운 폐결핵에서 기인된 늑막염으로 까짓 폐결핵이야 요새 약들이 좋으니까 감기 정도로 생각해 두면 틀림없다는 의사의 말투에, 한편은 불안도 하고 한편 위안도 되어, 언젠는 반쯤 남기던 죽을 꾸역꾸역 모조리 굶어 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차츰차츰 결핵에 걸린 자신이** 실감되어 오고, **아무리 약이 좋다고 하나 앞으로는 긴 시간 창백한 얼굴로 낙엽 구르는 소리에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 폐병 환자 노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해져서, 나는 몇 번이고 세면대 긴 **체경\* 앞에** 서서 **메기처럼 눈을 껌벅껌벅이며 혼자 울었다.**

그러나 도대체 병이라면 어디를 만지면 통증이 오고, 어디를 움직이면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와야 할 텐데, 이걸 어디를 만져도 아프지 않고, 그저 오후만 되면 끈적끈적한 늪지대에 빠져버린 듯한 미열만 오는 것으로, 좀 후에는 에잇 모르겠다 는 안이한 체념으로 **시간 맞추어 밥을 먹고, 빈 시간이면 잠을 자는 입원 생활에** 만족하게 되어 버렸다.

입원 생활은 금붕어 같은 생활이었다. 모든 환자들은 양순한 민물고기처럼 조용히 지느러미로 미동을 하면서 병원을 부유하고 있었다. 나는 이 붕어 같은 병원 생활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오랜 방황 끝에 고향에 닿을 내린 범선처럼 나는 한가로웠고, 그리고 즐거웠다.

(중략)

그러다가 반대편에 서서 어둠에 웅크리고 있는 병동을 바라보면 참으로 기괴한 감각에 싸여 버리는 것이었다. 병동은 파

도가 밀려오는 철 지난 해변에 서 있는 방갈로처럼 우울하게 해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모든 병실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유리창 너머로 **환자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내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우리가 투명한 바닷물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속에 수많은 해초와 생물이 수련거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병실이 제각기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육기 속에서 생명을 키워 가는 유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생생한 **경이**였다.

일 층, 이 층, 삼 층, 사 층, 모든 병동은 밤에도 환히 눈을 뜨고 있었다. 간호원들은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었고, 간혹 의사들은 '비상'을 알리는 주변 하사 같은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 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무표정하고 뻗뻗한 얼굴에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껴야 했다.

그즈음,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입원한 이후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치 못했다는 중대한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불쑥 일어난 느낌이었다.

언젠가 나는 외국 잡지에서 잘 인쇄된 화장품 광고를 본 일이 있었다. 그 광고는 남자들이 면도 후에 바르는 미안수\*를 선전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긴 그 남자가 유난히 파르스레 빛나는 턱 위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세련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광고여서, 그 잘 깎은 턱과 웃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는 못 배길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내가 그 최면술 거는 듯한 매혹적인 웃음을 제거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면, 나는 그 화보가 미안수 선전 광고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 병원 의사들은 미안수 선전 광고에 나올 만한 사내들이 미소를 결여하였음으로 하여,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략해 버린 듯 보였다. 그들은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굶을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모델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들이 만약 외무 사원처럼 웃으며 환자의 증세를 물어본다면, 그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것인가.

㉣이리하여 나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고, 밤낮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 애를 썼다. 나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기 시작했고,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그들의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생겨나는가 하는, **임상 실험**의 과정에 굉장한 열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가령 어느 한 곳이 가려울 때, 정확히 그곳을 집어서 긁어주는 쾌감이라든지, 어린애가 사과를 먹고 싶어 할 때는 직접 사과를 사다 주면 충족한 웃음을 볼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이드와 에고 학설을 응용해서 그들을 웃겨 보려던 나의 첫 번째 시도는 곧 좌절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난히 가려운 곳도 없었고, 무언가 가지고 싶은 욕구 본능도 퇴화되어 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잠을 자야 할 땐 수면제를 먹었으며, 배가 고플 땐

의사 전용 식당에서 영양이 풍부한 햄버그스테이크를 뜯었다. 소화가 안 될 땐 소화제를 먹었으며, 음악이 듣고 싶으면 환동실에서 발랄한 간호 학교 학생들과 구운 토스트를 씹으며 음악을 들었다. 피로할 땐 가루 비타민 C를 물에 타 먹었으며, 성욕이 고개를 들면 간단히 진통제로 말살해 버렸다. ㉠도대체가 그들은 충분한 영양을 취하고 있는 온상 속의 귀족 식물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그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최인호, 「견습 환자」

\*전범: '전쟁 범죄인'을 줄여 이르는 말.

\*체경: 몸 전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큰 거울.

\*미안수: 피부에 수분을 주어 피부 표면을 다듬는 화장수. = 로션.

9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③ 현재형 진술을 활용해 사건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④ 특별한 갈등 상황 없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 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인물 간 갈등 양상이 긍정적인 양상으로 개선되고 있다.

100. 윗글의 웃음에 대한 '나'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병원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요인이다.
- ② '병동'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결핍감을 유발한다.
- ③ '의사들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심리적 위안으로 작용한다.
- ④ '미안수 선진 광고' 속 '사내들'과 '병원 의사들'을 동일시하게 된 근거이다.
- ⑤ '간호원들', '외무 사원'과 달리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이다.

1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변화된 뒤에야 자신의 아픈 몸 상태를 자각하게 되었다.
- ② ㉡: '나'는 입원한 직후부터 계속 병에 차도가 없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 ③ ㉢: '나'는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 ④ ㉣: '나'는 의사들이 자신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 역할을 자칭하여 그 일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 ⑤ ㉠: '나'는 의사들이 인간적 욕구가 퇴화되어 결핍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1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푸코에 따르면, 근대의 규율 권력은 일상의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내재화한 개인은 외부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해 유순한 존재가 된다. 특히 푸코는 권력이 생명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생체 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병에 걸린 신체는 의학적 권력을 지닌 존재 앞에서 관찰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간수와 죄수의 관계와 같은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환자들은 병원 규칙과 의료진의 지시에 순응하게 된다. 이러한 생체 권력의 작동 방식과 그에 대한 저항을 다룬 소설이 「견습 환자」이다. 병원에 입원한 주인공은 관찰 대상인 환자의 본분에서 벗어나 은밀한 관찰의 주체로서 의사들을 진단하며 생체 권력의 관계에서 역전을 시도하지만 이내 실패한다. 이를 통해 일상에 잠재된 규율 권력의 견고함을 보여 준다.

- ① '의사들이' '나'를 '전범 다루듯' 하거나 '나'가 자신을 '죄수처럼' 인식하는 것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에 해당하겠군.
- ② '나'가 '아침이면 체온계를 입에' 무는 '모범 환자'가 된 것은, 의학적 권력을 지닌 존재의 관찰 대상으로서 환자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에 해당하겠군.
- ③ '나'가 '시간 맞추어 밥을 먹고, 빈 시간이면 잠을 자는 입원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병원에서 작동하는 규율 권력을 내재화한 개인이 병원 규칙에 순응하는 모습에 해당하겠군.
- ④ '나'가 '환자들의 움직임은 모습'을 보며 '경이'를 느끼는 것은, 일상에 잠재된 견고한 규율 권력에 저항하려는 대상들의 움직임 본 개인의 반응에 해당하겠군.
- ⑤ '나'가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며 '임상 실험'의 주체인 것처럼 구는 것은, 관찰의 대상이 관찰의 주체로 변모하여 생체 권력의 관계에서 역전을 시도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103~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장그래, 장백기 등의 신입 사원이 대기업 원 인터내셔널에 입사한다. 고졸 검정고시 출신의 장그래는 오상식 과장이 있는 영업 팀에, 인턴 경력이 많은 명문대 출신의 장백기는 철강 팀에 배치된다. 바쁘게 일하며 성과를 내는 장그래에게 경쟁심을 느끼던 장백기는, 선임자 강 대리에게 업무 지시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겨 이직 준비를 한다.

제8국\* S#58. - 철강 팀, 밤

강 대리: 장백기 씨, (덮은 백기의 노트북을 본다.) 나가겠단 생각이라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백기: !

백기: (일어나 돌아서서 본다.)

강 대리: 철강은 보수적인 사업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한 가지 아이템이 조금씩 사업 시장에 맞게 변형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원은 당장의 화려한 언변이나 포장에 능한 사람보다 멀리까지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백기: (울컥) 그래서, 지금까지 제게 그 기본기를 가르치신 거란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강 대리: (본다.)

백기: ㉠그렇다면 저는 더더욱 잘못된 대우를 받았군요. 말씀하신 그 기본은 학교, 인턴, 신입 교육 때 충분히 다졌습니다.

강 대리: (차분하게 본다.)

백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본다.) 제게 기본을 가르친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그냥 저를 싫어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강 대리: (쳐다보다가 가방을 든다.) 내일 봅시다. (가 버린다.)

백기: (그대로 서 있다가 확 따라 나간다.)

제8국 S#59. - 15층 엘리베이터 앞, 밤

강 대리, 하향 버튼을 누르는데 백기 확 나오며

백기: 오늘은 들어야겠습니다! 대체, 제가 왜 그렇게 싫은 겁니까?!

강 대리: (보다가) 장백기 씨, 이건 누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신을 판단할 만큼,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구요.

백기: 그럼 도대체 뭐니까?

강 대리: 팀에 배치받고 장백기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기억하지 못합니까?

백기: (약간 당황해서 생각하는)

[Flashback\*] 강 대리 앞에 보고서를 내미는 백기

백기: (자신감에 차서) 대리님! 제가 철강 팀에서 수익을 낼 만한 아이템을 개발해 봤습니다!

강 대리: (말없이 백기를 본다.)

백기: 사업 아이템 보고서를 제출한 것 말입니까?!

강 대리: 교육에는 배운 걸 확인하는 시간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팀과 관련해 신입인 장백기 씨가 읽어야 할 파일은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장백기 씨는 오자마자 사업 보고서부터 들이밀었습니다. 철강 팀 아이템 관련 파일들을 읽기도 전에 말이죠.

백기: !

강 대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돋보이고 싶은 의욕이 앞서면 조급해지는 법이죠.

백기: (모욕적이다. 흥분한) 강 대리님이 생각하는 기본이라는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강 대리: 잘못된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줬습니다. 다른 팀에선 어떤지 몰라도, 그게, 내 방법입니다.

백기: 기회요? 오타 체크하고 양식 만들고 실무직 업무가 기뻐니까? 더 배워야 하는 건 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 대리: (차갑게 본다.) ..... 아직도 멀었네.

열린 엘리베이터에 타는 강 대리, 단함을 누르고 백기 눈앞에서 닫히는 문.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백기, 거칠게 확 돌아서 들어간다.

(중략)

제9국 S#52. - 철강 팀, 낮

들어오는 백기. 책상 위에 보류된 재무 팀 결재 파일 프린트물과 강 대리의 결재 서류를 펴서 다시 본다. 잔뜩 구겨진 인상으로 노려보듯 비교해서 보지만 도통 모르겠다. 그때 탕비실\*에서 나오던 상식, 그런 백기를 보다가 다가온다.

상식: 재무 팀에서 빠꾸\* 먹었다매?

백기: (깜짝 놀라 보고 당황해서 인사하고) 네.....

상식: 빠꾸 이유도 못 받았대매? / 백기: (당황한)

상식: 재무 팀 다녀오는 길이야. (백기가 들고 있는 예산안 파일을 훑 낚아채 보며) 이거야?

백기: (당황한) 아, 네.....

상식: (숙, 숙 넘겨 본다.) 일정은 이렇게 말로 풀어놓으면 안 돼. 결재 틀에 맞게 표로 만들고, 맨 먼스\*는 내가 계산해서 넣어야지. 빠지니까 가격만 있고 인력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 계산이 필수라고. (보다가) 하하.....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양식은 참 신선하네. (백기에게 파일을 훑 건네준다.)

파일을 받는 백기의 흔들리는 눈빛.....

[Flashback] 제7국 S#32

강 대리: (E.) 이 듣도 보도 못한 양식은 뭐니까? 이 줄 간격 하며, 원인터 통일 양식 안 배웠어요?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일처리하래요.

백기: ㉠.....

상식: 수정해서 빨리 제출해. 재무 팀 자꾸 쪼더라. 하회탈 마 너가 들들 묶는 모양이야. (나가면서 중얼중얼) 장그래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백기: .....  
(중략)

### 제13국 S#48. - 한강 둔치, 밤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 두 사람. 안주는 없다.

강 대리: 요는 일하는 데 있어서 동기 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까?

백기: 다른 동기들은 뭔가 열심히 이뤄 가고 있는데..... 저는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뒤처지는 것 같고.

강 대리: (웃으며) 기획서를 내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는 건 아닐테고.

백기: (약간 당황)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강 대리: 장그래 씨가 하는 거 보니까 부러워요?

백기: (빠직) 부러운 건 아니고, 그냥 저 자신한테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 대리: 더구나 장그래 씨 계약직이고 당신은 정규직이니까.

백기: ㉡(술 마시려던 손을 멈춰, 당황하는 얼굴이 된다.)

강 대리: (맥주 한 모금 마시고) 장백기 씨가 일하는 곳은 철강 팀 맞죠?

백기: .....  
강 대리: (자분자분) 내가 한 번 이야기하지 않았나? 철강은, 카테고리 안에 할 일이 픽스돼 있다구요. 그걸 잘 진행되게끔 체크하고 관리해야 된다고요. 픽스된 사업은 일이 없다고 생각 합니까?

백기: 아, 아닙니다.  
강 대리: 우리 철강 팀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요? 예산 및 동원 인력은? 관계하고 있는 나라와 트라이 중인 나라는? 계약이 끝난 일이 계약대로 완수되기 위해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알아요? 그게 다 의미 없어 보이는 건가요?

백기: 아닙니다.

강 대리: ㉢남들한테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건배를 청한다.)

백기, 건배하면 맥주를 마저 마시고 일어나는 강 대리. 백기도 일어난다. 강 대리 건자 백기도 따라 걷는다.

강 대리: 우린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멈춰 서서 보며) 존재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숫자로

누군가는 목숨을 건 행동을 해요.

백기: .....  
강 대리: 장백기 씨 동기는 스스로 성취하세요. 그게 안 되면 버티기 힘들 겁니다.

백기: ..... 네.  
강 대리, 웃고 간다. 쳐다보는 백기. 조금 편안해진 마음으로 따라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강. 건너편 야경이 반짝 반짝거린다.

- 윤태호 원작, 정윤정 각색, 「미생」

\*국: 바둑에서 승부를 내는 판을 세는 말. 일반적인 드라마는 한번에 방영되는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회'나 이야기의 단위인 '화'를 사용해 '제1회'나 '제1화'와 같이 표기하지만, 「미생」은 바둑을 소재로 한 드라마답게 바둑에서 승부를 내는 판을 세는 말인 '국'을 사용해 '제1국'과 같이 표기함.

\*Flashback: 플래시백.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는 장면 혹은 그 기법.

\*탕비실: 병원이나 사무실 따위에서, 물을 끓이거나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방.

\*빠꾸: 물건을 받지 않고 되돌려보냄.

\*맨 먼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월 인원을 나타내는 숫자.

### 10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 발화의 맥락을 드러낸다.
- ② 내레이션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 ③ 제삼자의 등장으로 인해 두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된다.
- ④ 모든 장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를 활용해 장면 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한다.
- ⑤ 동시간대에 벌어진 다른 공간의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 준다.

### 104.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강 대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 ② ㉡: 화가 나서 흥분한 '백기'와 차분하고 냉철한 '강 대리'의 상반된 태도가 대비되고 있다.
- ③ ㉢: '상식'의 조언을 들은 '백기'가 '강 대리'의 지적이 타당했음을 깨닫고 있다.
- ④ ㉡: '강 대리'가 자신의 속마음을 오해하는 것으로 인해 억울함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 ⑤ ㉢: '백기'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밝히며 상대방을 격려하고 있다.

10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미생」은 일상성의 미학을 구현하여 뽀진성을 높이는 영상 매체의 서사로 평가받는다. 뽀진성이란 작품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독자에게 납득시키는 정도를 뜻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시청자가 쉽게 공감할 만한 인물이나 사건, 현실적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특히 직급의 위계를 시각화한 사무실, 인물 간 소통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엘리베이터, 정서적 긴장감이 해소된 인물의 심리 상태와 어울리는 확 트인 풍경의 야외 등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을 높인다. 또한 입사 동기를 질투하거나 자신만 뒤쳐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인물의 모습도 현실성이 두드러져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더불어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입사원들의 성장 과정이나 선악 구도를 초월한 인물 간 갈등 및 화해의 과정을 그려 내는 등 휴머니즘적 서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다.

- ① 제8국 S#58과 제9국 S#52에서 '장백기'가 사무실에서 '강 대리'나 '상식'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직급의 위계 차이에서 벗어난 현실적 공간의 뽀진성을 보여 주는군.
- ② 제8국 S#59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상황을 보여 주어 '장백기'와 '강 대리' 사이에 고조되는 갈등이 소통의 단절로 이어짐을 드러내는군.
- ③ 제8국 S#58과 S#59에서 드러난 '장백기'와 '강 대리'의 관계가 제13국 S#48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선악 구도를 초월한 인물 간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그려 내는 휴머니즘적 서사를 형상화하는군.
- ④ 제9국 S#52와 제13국 S#48에서 '장백기'가 '장그래'와 자신을 비교하는 발언을 의식하는 모습은 입사 동기 간의 질투와 경쟁심을 현실적으로 드러내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겠군.
- ⑤ 제13국 S#48에서 '강 대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진 '장백기'의 심리와 '한강 둔치'의 확 트인 야경이 조화를 이루어 시청자의 몰입을 높이겠군.





